

자구는 계속 지켜져야 하니까-
Eco를 포기할 수 없었다

자동차는 계속 달려야 하니까-
Performance를 포기할 수 없었다

친환경을 넘어 에코 퍼포먼스로 완성되다



환경을 지키면서 드라이빙 능력까지 줄게할 순 없을까?
이 모순된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와 노력이
N'blue Eco의 Eco Performance로 완성되었습니다.
회전저항을 줄여 CO₂배출량은 크게 줄이면서도
주행능력은 더욱 향상시킨 놀라운 기술!
선택은 언제나 N'blue Eco입니다.



하늘만큼 넉넉하게



자연이 주는 선물, 행복

04 당신을 응원하는 책

08 넥센명인

PURPLE

10 N'blue ECO Special
자연으로의 드라이빙, N'blue

16 HRD
Change & Innovation Course

18 Issue
OFFICE혁신

20 Best TPM
TPM의 전초기지 재료파트

22 Event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체험기

26 Tire
가솔린 기관, 합성 고무 공업화
그리고 분업

30 Car
중고차거래 10계명

34 Nexen Friends ①
서울 산우가정비공업사

GREEN

35 나무이야기

36 자연에서 배우다
자연이 주는 선물, 행복

40 자연에서 놀다
양떼와 누비는
평창 의야지 바람마을

44 자연에서 만나다
고기 없는 월요일
이현주 한약사

48 자연에서 맛보다
달콤하게 무르익다
무화과 & 아오리사과

51 Nexen Friends ②
카두업 마산점

RED

52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글로벌생산지원팀

56 가족사진 찍는 날
재료파트 유정열 직장 가족

58 길 그리고 우리
통영항 갯지가 참말로 짝이네

62 참, 고맙습니다
뽕뽕 뭉친 팀워크로 슛팅

64 별별 콘테스트
나의 사랑, 나의 짝궁

66 나눔 그리고 어울림
우리는 창녕 1기다

67 Nexen Friends ③
타이어애펙트 임은점

BLUE

68 사진의 기술
간편 포토샵 리터칭

70 운동의 기술
실생활 상황별 스트레칭

72 관계의 기술
자존심만 있나요, 자존감도 있나요?

74 생활의 기술
내 몸을 위협하는 전자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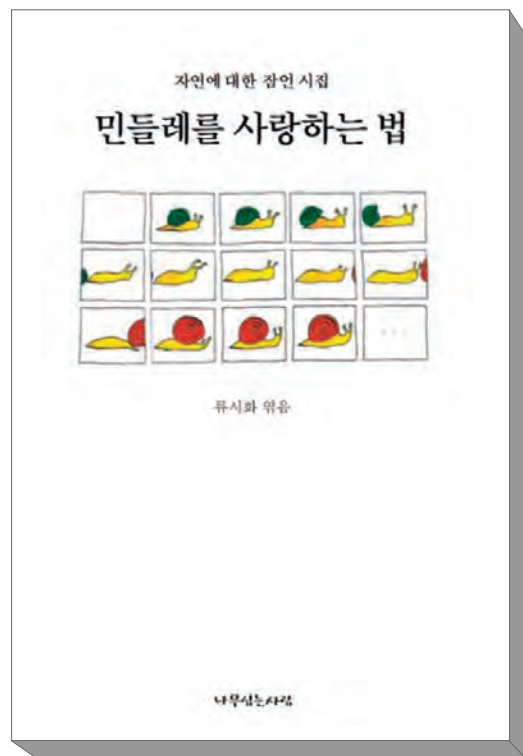
76 News

2011 Vol.45

HELLO
NEXEN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1년 가을호 통권 45호 | 발행인 이현봉 | 발행일 2011년 10월 21일 | 발행처 경남 양산시 유산동 30번지 넥센타이어(주) 인사팀 |
담당 박수현 (055-370-5283) | 기획 및 디자인 (주)하이미디에프&이 (02-795-3364) | 디자인 어진아, 장진숙, 김유진, 김지선 | 사진
사진/파책 (02-587-1102) | 프로세스 하이테크컴 (02-741-3377) | 인쇄 삼조인쇄주식회사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류시화

그렇다면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글 한민현 연구개발본부 부사장

그 하나, 글을 시작하면서

“책을 읽는 것은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데카르트의 말이 아니더라도 책 안의 주옥같은 글귀를 읽노라면 어느덧 그 책의 지은이와 함께 이야기하는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글을 써 나가던 순간 지은이의 숨결과 열정을 생생하게 느끼곤 한다. 나의 학창 시절부터 책은 늘 곁에 있었고,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적다라는 말에 부대끼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읽어 재웠다. 그런데 그중한 권을 이야기하라니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운 선택이다. 수많은 꽃이 제 각각의 자태와 색깔을 뽐내는 정원에서 어느 꽃이 가장 아름다우냐는 질문을 받은 것처럼. 그런데 결국 스스로 생각해도 의외의 선택으로 느껴지는 자그마한 시집을 집어 들었다.

그 둘, 지난 여름의 꼬트머리에서

몇 권의 책과 함께 여름을 났다. 그 두께만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손자병법〉, 아침 이슬 같았던 – 그러나 햇살에 절대 스러지지 않는 – 짧지만 긴 여운의 〈수증혜〉와 〈삼매경〉(삼성경제연구소, 거듭 반복해서 펼쳐야 하는 책), 관리자로서 보아야 했던 스티븐 코비의 책을 포함한 두세 권의 경영서,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읽어왔지만 끝을 보지 못했던 〈WAR, 전쟁의 기술〉 등.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화두를 계속해서 던지는 책이었다.

그러다가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던 어느 휴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책장을 뒤적이다 문득 집어든 먼지 쌓인 작은 책 한 권. 십 년도 훨씬 전에 보았던 잠언시집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이었다. “어떤 내용이었지?” 하며 책장 앞에서 서서 한 장씩 넘기다 흘린 듯 마지막 장까지 읽어버렸다. 족히 시간 반은 되었으리라. 다시 책상에 앉아 밑줄을 그어가면서 눈이 아닌 영혼으로 읽고자 한 두 시간. 그날이 휴일이 아니었더라면, 그래서 가족 모두가 달콤한 늦잠을 즐기는 평화로운 날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했으리라.

이처럼 때때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찾아온다. 왜 책은 한 번, 두 번 읽을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에 열거된 그런 비중 있는 책이 아니어도 언제든 지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펴드는 순간, 우리는 이전에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책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이런 조그마한 감동에 힘입어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진실로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히 이 시집을 소개한다. 이 짧은 시집은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지금은 그리움의 문을 닫을 시간〉, 그리고 〈나무의 시〉 등과 같이 쉬운 낱말로 쓰였지만 그 말들이 이어지는 순간 누구나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감동을 느끼게 하는 류시화 시인이 세상의 모든 자연에 대한 잠언시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류시화 시인은 그 특유의 유현함과 명상적인 분위기로 인도한다. 읽는 이들에게 흡사 깊은 산 중의 고찰승방에서 장좌불와(長坐不臥)로 아득한 선의 세계를 해매도록 하는 여운의 시인이 골라 엮은 잠언시 또한 범상치 않다.

“

민들레는 자연이다.

온갖 이유와 명분을 앞세워

우리가 파헤치고 있는 한 자락 자연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우리는 우선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 시는 말한다.

”



그 셋,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

.....

정원에는 그가 좋아하는 꽃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민들레가 피어났다.

민들레는 아무리 뽑아도 어디선가 씨앗이 날아와 또 피어났다.

민들레를 없애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써 봤지만

그는 결국 성공할 수 없었다.

.....

그러자 정원 가꾸기 협회에서는

그에게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알려 주었다.

그것은 이것이었다.

‘그렇다면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민들레는 자연이다. 온갖 이유와 명분을 앞세워 우리가 파헤치고 있는 한 자락 자연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우리는 우선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 시는 말한다. 아울러 또 하나의 속삭임 -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지 조용히 이야기한다. 싫다는 감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마음 속 한 귀퉁이에 담고 고뇌하는 우리에게 민들레를 사랑하라고 속삭인다. 싫어하는 것을 오히려 감싸 안으라는 역설을 읽으며 단단했던 가슴이 불현듯 녹아내리는 느낌은 비단 나만의 것일까?

그 넷, 민들레가 있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론자 라첼 카슨은 “대지는 꽃을 통해 웃는다”고 말하고, 중세 독일 여류시인 에바 스트리트마터는 “삶에서 진정으로 값진 것들은 모두 값이 없다”면서 우리의 삶을 값진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감동적인 글 귀 하나.

지난밤에 나는 / 하늘에서 부드러운 비를 내리

신이 이 세상을 씻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아침이 왔을 때 / 신이 이 세상을 햇볕에 내 걸어



ㄷㄷ

어느 누가 이런 시를 읽고

그냥 무감각하게 넘길 수 있을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런 눈물 어린 감동을 전할 수 있을까?

아들 모두는 부대끼며 살아온 오랜

삶 속에서 진정으로

민들레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리라.

ㄴㄴ

덧붙여서...

넥센타이어는 자연과 더불어 성장해 왔으며, 알스
프로 그릴 것이다. 환경을 생각하면서, 친환경 제프
로, 환경과 함께 아우러지도족 하는 제품을 만들기.
이것이 모든 넥센인의 생활이다.

민들레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하나 담겨진 타이
어, 우리 넥센인 모두의 마음이자 삶 그 자체이다.

말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

아, 신이 저 높은 자작나무의 깨끗한 밑동처럼

내 혼의 더러움도 / 씻어 주지 않으시려는지

- 윌리엄 스티지

어느 누가 이런 시를 읽고 그냥 무감각하게 넘길 수 있을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런 눈물 어린 감동을 전할 수 있을까? 이들 모두는 부대끼며 살아온 오랜 삶 속에서 진정으로 민들레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리라. 이 시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킨슨은 “한 가슴에 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면 / 난 헛되이 산 것이 아니라. / 한 인생의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다면 / 한 고통을 위로할 수 있다면...”이라고 우리의 영혼에 잔잔한 여운을 남기고, 유고의 한 화가는 어린 시절에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서 우리는 이 지구의 여행자에 불과하며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버드대 교수였다가 명상 수행자가 되었던 어떤 이는 “풀과 벌레들처럼 /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며, / 삶다운 삶을 살아야 / 죽음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우리를 일깨우며,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소로우는 “그대의 삶이 아무리 남루하다 해도 / 그것을 똑바로 맞이해서 살아가라. / 그것을 피하거나 욕하지 말라. / / 햇빛은 부자의 저택에서와 마찬가지로 / 가난한 집의 창가에도 비친다. / 봄이 오면 그 문턱 앞의 눈도 역시 녹는다.”라고 누구에게나 희망은 평등하고 공평함을 노래한다.

이게 자연의 삶이다. 그렇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는 이제는 눈치 챌다. 풍요롭고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게 무슨 대수랴. 남루하지만 가치 있는, 그리고 부족하지만 넉넉한 자연에서 어울려 살다 가면 그뿐, 민들레 풀씨가 어디에서 날아온들 그게 무슨 상관이라.

그 마지막, 에필로그

잠언 시집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은 비록 작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보다 크다. 모든 것을 포용한다. 긴 생각에 잠기게 한다. 나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자연을 사랑하게 해 준다. 내가 자연의 일부분임을 알게 한다. 아니 내가 바로 자연이라는 것을 드디어는 깨닫게 한다.

그 누구의 말처럼 소림사에서 쿵푸만 배우라는 법은 없듯이 시집이지만 시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고, 시 이상의 더 많은 것을 생각게 해준다. 읽는 사람의 그릇 크기에 따라 제 각각 넘치게 채워준다. 작은 놈이 내공은 보통이 아니다.

이러한 무한크기의 것을 내 알량한 글 솜씨로 독자제현에게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그렇다. 이 글은 수박이 되려다 만 줄 고어진 호박이다. 다 내 탓이다. 읽는 분들께서 깊은 헤아림으로 봐주었으면 싶다. ㉞





창녕에서 가류파트 정상복 직장 한게임더!

글 박수현 인사팀
사진 이맹호

넥센타이어 공장혁신사무국에서 희소식을 전해왔다. 생산2팀 가류파트 힘모아 분임조가 2011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은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첫 출전에도 TPM 7스텝을 완료한 것도 아니고 4-3스텝 완료 단계에서 당당히 전국 대회 은상을 거머쥐다니 그 쾌거의 저력이 궁금했다. 그래서 모두가 손꼽는 이를 찾았다. 바로 힘모아 분임조 정상복 직장이다.

“남들 하는 것처럼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같은 자리일 수밖에 없죠. 이왕 하는 거라면 열심히 달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아말로 최고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일 테니까요.”

2006년 11월 첫 TPM 활동은 그렇게 시작됐다. 각오를 다지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힘모아 분임조도 초반에는 추상적으로만 다가오는 TPM 활동에 시간만 보냈지만 3개월이 지나자 모두의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다. 설비 청소를 수월하게 해줄 이동식 청소도구함을 제작하기도 하고 설비 내부 이물질 제거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등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변화가 생겼다. 작은 변화가 쌓여 작업 효율로 나타나니 부쩍 자신감이 붙었다. 편리하다는 주변 동료들의 칭찬에 힘이 붙곤 나고 자료를 챙겨주며 돕는 공장혁신사무국도 고마웠다.

스텝이 진행되면서 개선사례도 점차 발전했다. 이형제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와 커버를 개선한 일과 탑플레이트 상부 누증을 방지해 부적합품률을 낮춘 사례는 중국 청도공장까지 확산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금도 많은 유무형의 제안을 내는 중이라고.

사내 대회에서의 성적도 당연히 훌륭하다. STEP 진단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물론 2008부터 개편된 사내 분임조 개선사례 경진대회에서는 2008년 1회, 2009년 2회, 2010년 1회로 총 4회의 최우수상을 받았다.

“제상에 혼자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리자만 TPM을 알면 소용이 없어요. 분임조원 모두가 설비를 이해해야 하지요. 분임조원들이 불평 않고 함께 노력해준 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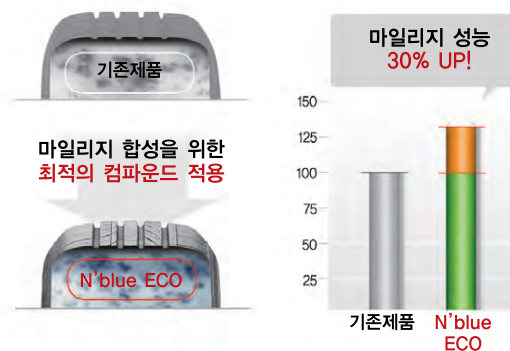
내년 2012년부터는 창녕공장에서 일하게 되는 정상복 직장. 3년 이내에 창녕공장의 TPM 수준을 양산공장만큼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인생의 매 순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넥센명인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⑩

ECO Mileage

4세대 ECO 테크놀로지 컴파운드 녹색기술로 뛰어난 저연비를 자랑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녹색 드라이빙의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녹색기술의 꿈, 탁월한 저연비 성능

최근 전 세계적 경기 침체와 리비아 사태의 여파로 국제 원유 값이 초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개발된 N'blue ECO는 기존제품 대비 30% 마일리지를 향상시킨 제품이다. ECO 컴파운드에 적용된 내마모성 듀얼 폴리머와 CTOT(Constant Temperature & Optimum Time controlled mixing tech : 컴파운드 혼합 온도와 시간 조건을 제어하는 최신 혼합 공법으로 보강제의 향상된 분산성과 결합 반응을 통해 우수한 마모성능을 제공함) 혼합기술 적용으로 트레드 수명을 월등히 향상시켜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최장의 마일리지를 선보인다. 이는 소비자들의 타이어 교체시기를 고려할 때, 4회당 1회가 감소되는 효과이다. 뿐만 아니라, 연료절감 컴파운드를 적용하고 타이어의 회전저항을 감소시켜 연비를 5.7%로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연간 149,400원을 절약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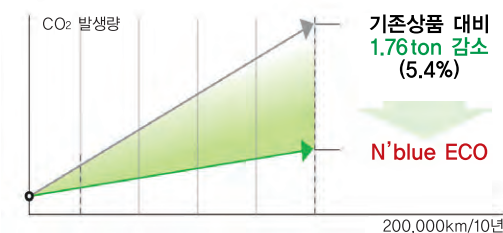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지구의 환경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차례 극적으로 변해왔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최근 급증하여 기온상승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다. 이런 환경 현상은 단순한 기온 상승에 머무르지 않고 기후 변동이나 식량·식수난, 해양 산성화 등 끔찍한 현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N'blue ECO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존제품 대비 5.4%나 절감해 친환경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자동차 1대에 N'blue ECO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동안, 기존 제품 대비 1.76톤의 CO₂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314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

[이산화탄소(CO₂) 기존제품 대비 감소량]



314그루의 나무 심기 효과!



자연으로의 드라이빙, 뛰어난 저연비 기술, CO₂ 감소, 향상된 마일리지 친환경 타이어 N'blue ECO

넥센타이어가 최근 출시한 친환경 타이어의 대표주자 N'blue ECO가 폭 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 유가 상승과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고, 친환경 최첨단 차량에 알맞은 제품으로 개발된 차세대 친환경 타이어 N'blue ECO. 그 놀라운 성능을 공개한다.

글 김태년 주임연구원 제품디자인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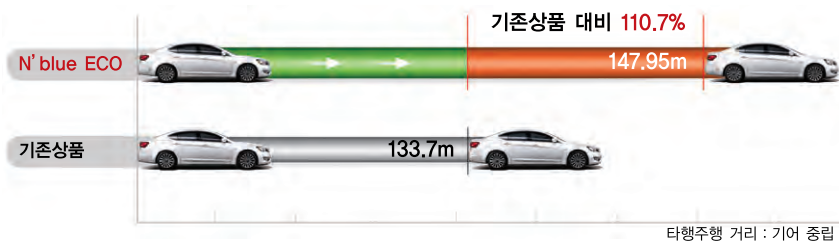
N'blue ECO

ECO Technology

N'blue ECO는 최첨단 기술력을 접목하여 더욱 향상된 저연비 성능과 저소음, 뛰어난 제동력 및 마모성능으로 고객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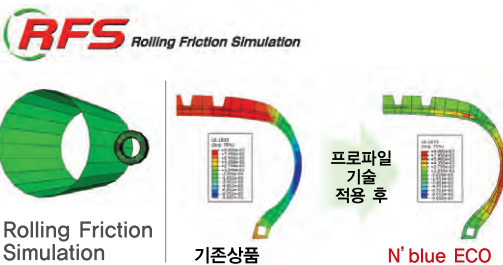
연장된 타행 주행거리

N'blue ECO는 주행 중 변속기를 중립상태로 전환하여 관성에 의해 주행하는 타행주행 테스트 결과 동일에너지로 기존 제품 대비 110.7%의 거리를 더 주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비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최첨단 기술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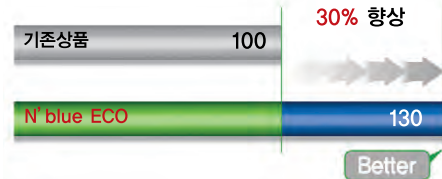


최소한의 회전저항 실현

N'blue ECO는 타이어가 회전하는 동안 차체 하중과 노면 마찰로 인해 반복적으로 변형하며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 즉 회전저항을 기존 제품 대비 30% 향상시켜 뛰어난 저연비 성능을 실현했다. 이는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특수 카카스 프로파일 기술인 RFS(Rolling Friction Simulation)이라는 최첨단 기술 덕분인데, 넥센타이어 연구진들의 밤낮 없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적저항 성능평가]



상상 이상의 제동력과 마모성능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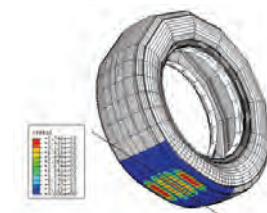
최첨단 FOS(Footprint Optimum-shape Simulation) 기술이 적용된 N'blue ECO는 제동력과 마모성능 역시 뛰어나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최적화 설계된 트레드 프로파일은 접지압 균등 배분 실현으로 이상마모를 방지하고 제동성능을 향상시켰으며 더욱 길어진 트레드 수명을 제공한다. 제동시험 결과 제동거리가 기존 제품 대비 5%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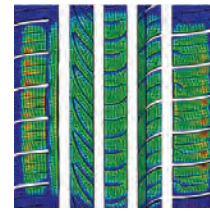
[제동시험 결과]



Wear Simulation



Foot Print Shape



ECO Driving

친환경 기능성 디자인이 고객들의 고귀한 감성가치를 소중하게 간직한다.

백조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모티브한 Emotion Eco-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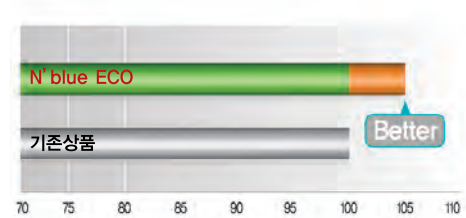
N'blue ECO는 친환경 타이어라는 본질에 맞게 디자인에도 친환경 디자인을 적용했다. 백조의 우아한 아름다움과 역동적인 날갯짓을 부드럽으면서 고급스러운 라인 속에 구현하려 애썼다. 또 친환경 컴파운드가 적용된 점을 차별화하고자 사이드부에 고분자 결집 상태를 엠보싱 타입의 볼륨으로 표현했다. 이는 N'blue ECO 특유의 친환경 디자인이라 평가 받고 있으며 실제 국내 유명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거기다 최상의 저연비를 자랑하는 N'blue ECO의 특징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유 계기판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사이드 부분에 적용해 시각적 사용성을 극대화했다.

성능 우선주의 기능성 디자인으로 최상의 승차감 제공

N'blue ECO는 접지부의 In-side / Out-side 부분에 차별화된 비대칭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채택해 타이어의 부분적 기능성에 디자인적인 전략으로 대응했다. 다양한 형태의 사이드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설계된 사이드 프로파일을 적용해 편안한 승차감을 선사한다. 또한 강성을 보강한 외측블록과 유연성을 확보한 내측블록의 조합으로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에서 우수한 접지력을 제공하며, 어떠한 도로여건에서도 안정된 조종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코너링을 할 때 아웃사이드부에 집중되는 응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정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스포츠슈즈의 외측구조에서 응용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도입했다.



[승차감 성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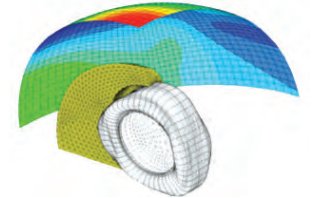


고요함의 절정을 경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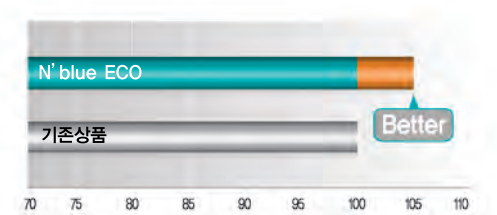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최적화된 NES(Noise Emission Simulation) 최신기술을 N'blue ECO에 도입함으로써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쾌적하고 부드러운 음의 높이, 크기, 음색을 제공한다.



Noise Simulation



[소음 성능평가]



최첨단 기술력과 친환경 디자인 · 컴파운드가 최적의 조화를 이룬 N'blue ECO를 개발하는데 참여한 연구진의 일원으로서 뿌듯함과 보람이 앞선다. 이는 당사 모든 임직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소중한 땀으로 이루어진 영광이라고 하겠다. 넥센타이어의 N'blue ECO로 인해 소비자들은 경제적 이득은 물론 획기적인 최첨단 친환경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젠 넥센타이어 가족들이 기술력 부문에서도 자부심을 가질 때가 왔다. 끝으로 넥센타이어의 모든 임직원에게 찬사를 보내며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넥센타이어가 세계 일류 기업으로 우뚝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더욱 노력하겠노라고.



넥센타이어는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제품과 품질을 인정받으며 타이어업계에서 본격적으로 세계 10위권 진입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CP672에 이어 올해 지난 8월에는 세계 트렌드에 발맞춘 친환경 제품 N'blue ECO를 국내에 출시하며 소비자들에게 뛰어난 기술력을 어필하고 있다. 높은 연비효율을 실현하고, CO₂ 배출량을 낮추며, 마일리지까지 향상시킨 넥센타이어 기술력의 집약체 N'blue ECO의 신상품 발표회를 살펴보자.

지구를 생각하는 넥센타이어, N'blue ECO

고유가시대를 맞아 높은 연비효율을 실현하고, CO₂ 배출량을 낮추며, 마일리지까지 향상시킨 친환경 타이어 N'blue ECO. 넥센타이어를 의미하는 N과 blue라는 컬러의 청량감을 조화시킨 네이밍이다. 여기에 생태계를 뜻하는 Ecology의 약자로 'ECO'를 사용해 친환경적인 특성을 더욱 강조했다. 기존상품 대비 마일리지가 30% 향상되고 5.7%의 연비절감, 5.4%의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소를 실현한 환경 지킴이 제품이다. 이런 N'blue ECO의 국내 출시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춘 뿐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넥센타이어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 8월 19일과 23일에는 각각 서울 프라디아와 부산 웨스틴 조선에서 넥센타이어 신상품 N'blue ECO의 발표회가 열렸다. 약 130여 명의 대리점주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이번 발표회는 세계 트렌드에 맞춘 친환경 제품의 개발로 글로벌 시대를 준비하는 넥센타이어의 야심찬 각오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먼저 대표이사인 이현봉 부회장은 "N'blue ECO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신제품 발표를 시작으로 미래시장을 선도해 나갈 친환경 저연비 제품을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능력과 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고객의 요구는 물론 대리점주들의 판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환영사를 밝혔다. 이어 창녕지원팀에서는 친환경 창녕공장 소개 PT와 홍보 영상을 상영하며 넥센타이어의 내일이



01 이현봉 부회장과 임원들이 N'blue ECO를 공개하고 있다.

02 창녕공장 소개 PT와 홍보영상을 시청하는 대리점주들

03 넥센타이어가 후원하는 레이싱팀 KTdom 안재모 선수와 함께

04 행사장 곳곳에 비치한 다양한 모델의 타이어가 대리점주의 시선을 끌었다.

05 N'blue ECO를 소개하는 레이싱모델의 포토타임



담긴 차세대 생산기지 창녕공장의 비전과 건설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대리점주와 함께 한 N'blue ECO 축제

이날 발표회의 하이라이트 제막식 행사에서는 참가자들 모두가 함께 하나 둘 셋을 외치며 친환경 타이어 N'blue ECO를 환영했다. 이후에는 기술연구소에서 준비한 N'blue ECO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 밖에 친환경 타이어 N'blue ECO의 판매목표와 정책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넥센타이어는 이 자리에서 N'blue ECO는 넥센타이어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신상품이라고 밝히고 이날 행사에 참가한 대리점주의 적극적인 판매를 독려하며 앞으로도 대리점주의 기대에 부응하는 넥센타이어가 될 것을 다짐했다.

끝으로 N'blue ECO 출시기념 및 넥센타이어와 영업일선에서 뛰는 대리점주의 동반 성장을 기원하는 건배 제의와 함께 저녁만찬이 제공되었으며 본 행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마지막까지 즐거운 분위기였다.

넥센타이어는 "N'blue ECO는 3년이라는 긴 연구개발을 통해 탄생한 야심적인 만큼 기존 제품의 취약점을 충분히 보완해냈다는 자부심이 있다. 품질에 있어서 결코 실망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뛰어난 성능의 친환경 제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¹⁾

홈페이지에서 N'blue ECO 만나기

친환경 특징을 살린 비주얼로 상세 소개플래시 등 상품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도록 제작했다. 자연친화적 특성을 강조한 비주얼과 상품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래시, 상품 카탈로그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했다. 또 고객이 현재 자신의 차량에 N'blue ECO를 장착했을 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연료(L) 및 연료비 절감과 환경을 위한 CO₂ 저감효과, 나무심기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 연비체험기를 배치, 고객에게 N'blue ECO의 효과를 가상체험 할 수 있도록 했다.



변화와 혁신, Change & Innovation Course 성공을 위해 준비하라

넥센타이어의 미래는 창녕공장의 성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녕공장을 발판삼아 글로벌 TOP 브랜드로의 발돋움을 꿈꿀 때인 것이다. 이 꿈의 실현을 위해 서 인사팀 인재개발파트는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전사적인 'Change & Innovation Course'를 실시하고 있다.

글 조광신 인사팀 과장 사진 박수현 인사팀

창녕에서 또 한 번 성공을 준비하라

넥센타이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바로 창녕공장의 설립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와 지대 그리고 타이어 제조업체로는 드문 입고부터 출고까지의 최첨단 전자동 제 조설비까지, 이는 언뜻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넥센타이어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전문 생산인력과 양산공장의 성공을 이끈 엔지니어 및 영업 조직의 조합으로 성공을 장담하고 있다. 우아한 백조의 이면엔 분주한 물갈퀴질이 있듯이 창녕공장과 넥센타이어의 성공에도 분주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새로운 도약에 걸맞은 준비된 넥센인이 되어야 한다. 양산 · 청도 · 창녕에 이르는 3개 공장을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미비한 조직 역량이 개선되어야 하며 2개 공장 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조직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둘째. 최첨단, 최대 규모의 창녕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금보다 3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성공이 아닌, 피땀 어린 노력만이 성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넥센타이어가 가진 브랜드 경쟁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조직과 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 브랜드의 경쟁력은 사람, 조직, 시스템의 연계에서 만들어진다. 때문에 지속적인 혁신으로 각 분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CHANGE & INNOVATION COURSE



명성을 쌓는 데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1분이면 충분하다.

조직의 변화와 혁신은

기업 생존에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워런 버핏, 포춘지 인터뷰 2002년)

리더부터 변화하고 혁신하라

먼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4회에 걸쳐 양산 본사 및 서울사무소, 전국 지점, 중국 청도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Change & Innovation Manager Course'를 실시한 바 있다. 총 99명의 대상자는 24시간 과정으로 2박3일 동안 BTC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어 10월에는 부차장 113명을 대상으로 한 'Change & Innovation advanced Manager Course'가 4회에 걸쳐 이어졌다. 리더들의 변화와 혁신은 조직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창녕공장의 성공을 위해선 리더급 관리자들이 서로의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업무적 관행 탓에 닫힌 부분을 혁신해야 한다. 나아가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자로서의 역할과 경영진을 포함한 리더와 실무자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도 재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고급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재인식하고, 창녕공장뿐만 아니라 넥센타이어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고급관리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계획적으로 수립했다. "21세기는 고급관리자에게 더욱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한다"는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창의적인 사고를 가로막는 '상자'가 무엇인지를 찾아, 그 상자에서 벗어나고, 상자 밖에서의 경쟁을 직시하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는 총 24시간의 과정이다.

본 과정을 수료한 리더들은 조직 전체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려일으키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보였으며 새로운 넥센타이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회사가 한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해선 리더들의 노력이 필수적이기에 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이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은 1, 2회로 그치지 않는다. 회사의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해, 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Change & Innovation Course는 계속 진화해 나아갈 것이다. 조직원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

사무실이 달라졌다!

OFFICE 혁신 능률이 쑥쑥!

가장 장수하는 조류인 솔개는 40세가 되면 더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선택한다. 고통스럽지만 노화된 부리와 발톱, 날개를 모조리 빼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솔개는 70세까지 살고 변화를 거부한 솔개는 그대로 삶을 마감한다.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예다.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수동적인 모습보다 주체적인 변화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근무환경도 마찬가지다. 업무능률 향상은 끊임없는 OFFICE 혁신으로 시작된다.

| 글 · 사진 송준우 총무팀



Before

Simple, Speed, Slim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OFFICE 혁신은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에서 '창의적이고 똑똑하게 일하는 넥센인'으로 발전하기 위한 근무 환경 개선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3S(SIMPLE - 업무 가시화, SPEED - 업무 신속화, SLIM - 업무 간소화) 목표를 수립해 약 10개월간 지속하고 있는 사내운동이다. SIMPLE 부문은 CLEAN OFFICE, 문서 FILING, 업무 공유를 위한 OFFICE 혁신 공간 재조정이며 SPEED 부문은 3단 결재 활성화, 각종 양식 전산화, 문서 색인 시간 단축, 마지막으로 SLIM 부문은 보고, 회의, 미팅, 사무용품 간소로 구성했다.

2011년 1/4분기에는 양산 본사, 서울사무소, 내수영업지점 총 3곳을 구분하여 각각의 실정에 맞는 상세추진계획을 전자 공지하고 책자와 신문 등으로 홍보했다. 각 부서별로는 O.K(OFFICE KEY)요원, S.O.K(SECTION OFFICE KEY)요원을 설정하여 OFFICE 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또 CLEAN OFFICE의 날을 지정하여 양산 본사는 매주 금요일에, 서울사무소와 내수영업지점은 매주 수요일에 주기적으로 사무실 내 환경 관리를 도모했다.

업무는 진행하는 동안 익숙해지고 습관화된다. 이런 고착화된 행동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혁신'이란 단어는 입으로 내뱉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1/4분기는 임직원들이 OFFICE 혁신을 인지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서서히 환경이 개선되자 초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피하던 임직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솔개처럼

OFFICE 혁신의 개념이 안착되자 2/4분기에는 OFFICE 혁신 평가제를 반영해 상반기 부서별 평가를 시작했다. OFFICE TOP진단(SIMPLE 부문), OFFICE 혁신팀 평가(SPEED 부문), 부서별 자체 평가(SLIM 부문)이라는 총 3개 항목을 평가 항목으로 삼고 양산 본사, 서울사무소, 내수영업지점 총 3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밖에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듣는 시간도 있었다. 보다 공정한 OFFICE TOP 진단을 위해 OFFICE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부서별 자체 평가는 각 부서 O.K/S.O.K 요원들이 실시했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총 19명이 응모했으며 설계해석팀 육남석 주임 연구원 아이디어가 1등을 수상했다. 아이디어는 정보 전략팀과 협의 후 현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1/4분기 수상부서〉
양산 본사 - 공장혁신사무국
서울사무소 - 인재개발파트(구 인재개발팀)
내수영업지점 - 성남지점

After

01 매의 눈으로 TOP 진단하는
OFFICE 혁신위원회

02 OFFICE 혁신교육을
받는 사우들

03 중국법인에서도
OFFICE 혁신교육이 실시되었다.

04 OFFICE 혁신활동으로 한결
깨끗해진 서울사무소

평가 항목별 총 평가 결과 양산 본사에서는 공장혁신사무국이, 서울사무소에서는 인재개발파트(구 인재개발팀)가, 내수영업지점은 성남지점이 1등을 차지했다. 1등 부서는 2/4분기 혁신 회의에서 상반기 OFFICE 혁신 결과를 발표하고 상장 및 상금(20만 원) 사상이 이루어졌다.

추후 하반기에도 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상, 하반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다가오는 2012년에는 "2011년 NEXEN 혁신 대상" 선정 최우수 부서를 시상할 계획이다.

현재 OFFICE 혁신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서별 목표 설정이라고 판단한 OFFICE 혁신팀은 지난 7월부터 OFFICE 혁신교육을 펼치고 있다. OFFICE 혁신교육 1·2차는 양산 공장 O.K/S.O.K 요원을 대상으로, 3·4차는 서울사무소 O.K/S.O.K 요원과 내수영업지점 지점장을 대상으로, 5차는 중국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10월부터는 직급별 교육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OFFICE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향후 중국법인 및 신설되는 창녕공장 또한 OFFICE 혁신 추진 부문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OFFICE 혁신의 시작은 근무하는 임직원의 변화 의지에서부터 시작한다. OFFICE 혁신팀은 새로운 도약을 선택하는 솔개처럼 우리 모두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또한 멀지 않은 시간에 혁신을 외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N)



현장의 이야기가
시발점이 되어 태어난
마그네틱 청소도구

새하얀 타이어 공장

넥센타이어 TPM의 전초기지 재료파트 꿈꾸기

넥센타이어가 TPM을 시작한 지 이제 6년. 그러나 늦었다고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만의 색깔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자면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 파트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부쩍부쩍 성장하는 재료파트를 보면 더욱 그렇다.

글 박수현 인사팀
사진 이맹호

그 남자들, 빗자루를 들고 일어서다

넥센타이어의 여러 파트 중에서 TPM의 강자는 누가 뭐래도 재료파트다. 매년 TPM시상식에서 상을 휩쓰는 것은 물론 뛰어난 혁신맨들도 재료파트 출신이 많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으니 김영두 파트장은 대뜸 '이웃을 잘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재료파트의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이웃사촌은 공장혁신사무국. 2006년 TPM활동을 시작하면서 이곳에 사무실을 연 후 줄곧 돈독한 이웃으로 지내왔다. 가까이에서 교류하며 어려움이나 궁금증을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직접 팔을 걷고 나선 파트원들의 수고는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은 옛이야기지만 재료파트는 고무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환경이 쉽게 오염되곤 했다. 청소를 하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남자 사우들은 청소를 귀찮고 부끄러워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당시 파트장이었던 생산팀 이성재 팀장이 직접 현장에 빗자루를 들고 나섰고 어쩔 수 없이 부하직원도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거나 따라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TPM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자 적극성이 생겨났다. 이 기세를 몰아 시작한 TPM 활동이 작업환경 개선이다. 항상 까맣게



김영두 파트장

카본가루가 묻어있는 현장 벽면을 밝게 칠하고 벽화를 그려 넣었다. 빈 공간에는 가족사진이나, 파트 내 행사 사진 등으로 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게시판을 꾸몄다. 근무환경이 좋아지니 작업자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고 작업자들의 변화는 설비의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로 이어졌다.

이 세상에 개선할 수 없는 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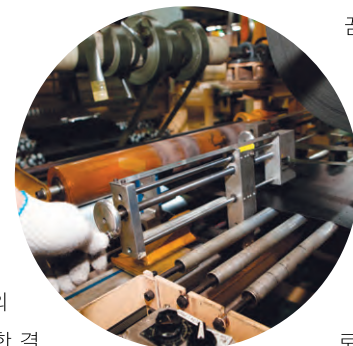
재료파트가 가장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인 분야는 현장 작업자들의 불편 없애기다. 현장의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발상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관건은 관리자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그래서 재료파트는 조장모임, 분임조장모임 등을 자주 개최해 이야기를 나눈다. 공적인 모임 외에 사적인 모임도 많다. 부부동반 모임, 야구시합, 체육대회 등등. 자주 모여 어울리다 보니 더욱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에 익숙해졌다. 불편개선사항 중 하나가 바로 청소도구의 개발이다. 설비 바닥에 떨어진 와이어 등 작은 금속은 잘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집어내기도 쉽지 않다는 현장의 이야기가 시발점이 되어 마그네틱 청소도구로 태어

났다. 이것은 중국 청도공장에도 전파됐다.

재료파트에서 자랑하는 대표 혁신맨 유경열 직장의 제안도 놀랍다. 특히 Fischer 설비 SB 전폭 측정방법을 개선했던 사례는 연간 10억 원이 넘는 개선 효과를 보여 대표이사로부터 상까지 받았다. 그 밖에도 Fischer 개조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TAPE 고정볼트 풀림현상을 방지하고, SB에 개별 실린더를 사용하여 불량률 예방하는 등 알차고 다양한 제안들이 재료파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영두 파트장은 갈수록 설비가 자동화되고 TPM 기법도 날로 발전하듯 사람들도 한 발 앞서 생각해야 하며, 파트원들의 독창적인 생각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돕고 지원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새 하얀 타이어공장을 꿈꾸다

타 회사들 보다 10여년 늦은 출발을 한 넥센타이어의 TPM. 지금은 4-3스텝을 완료하고 4-4스텝 전기계장 단계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그간 분임조 단위의 TPM을 꾸준히 시행하고 설비의 고장률 감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설비 개선도 지원한 결



과 재료파트 오봉산 분임조는 2011년 경남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어냈다. "매년 연말 진행되는 TPM 공장혁신활동 시상식에서 2009년, 2010년 연속으로 최우수파트에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 재료파트에서 제안한 개선사항으로 거둔 경제효과만 해도 18억 4,000만 원에 달하지요. 매달 공장혁신사무국에서는 TPM 월간 혁신맨을 뽑는데 10월까지 벌써 3명의 혁신맨이 재료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재료파트 = TPM이라는 말이 성립할 만한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김영두 파트장은 남들과 똑같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고 정관념 타파야 말로 진정한 개선활동이라고 덧붙인다. 그가 꿈꾸는 넥센타이어는 하얗게 칠해진 공장이다. 카본가루로 얼룩지기 쉬운 현장에서 흰색은 금기시되는 색깔이다. 하지만 김영두 파트장은 꾸준한 TPM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하얀 공장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재료파트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선임자가 남겨둔 장점과 파트원들의 도움, 그리고 제 노력이 함께 한다면 2011년에는 최선을 넘어 최고가 되는 해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넥센과 함께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체험기

꿈을 만지다

잠실 키자니아 입구 앞, 엄마와 아빠 손을 잡고 온 꼬마와 유치원에서 단체로 소풍을 나온 아이들이 떼 지어 웃음을 만든다. 오늘 이곳에서 몇 십 년 후 이를 꿈을 미리 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다양한 직업을 온몸과 오감으로 느끼는 키자니아에서 아이들은 웃거나 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넥센타이어 영업2팀 김윤상 대리의 아들 김무비 군이 그러했던 것처럼.

글 안성은 사진 이맹호



오늘의 첫번째 체험은 수타피자 만들기



교자 레스토랑

두 번째 찾은 키자니아, 오늘은 무엇을 체험해볼까

'멋진 어린이들의 나라'라는 의미를 지닌 키자니아는 1999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일본, 포르투갈, 중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직업체험 테마파크다. 빌딩, 상점, 자동차 등을 2/3 크기로 재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곳에서 만 3세에서 16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90여 종에 달하는 어른들의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다.

삼성전자, 대한항공, 현대기아자동차, 롯데제과, MBC, 중앙일보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과 국세청, 산림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넥센타이어 역시 운전면허시험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체험은 키자니아의 공식 화폐인 키조를 벌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아이들은 경제를 직접 체험하고 바른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다.

올해 2월에 키자니아를 첫 방문했다가 직업체험의 매력에 흠뻑 빠졌던 영업2팀 김윤상 대리의 아들 무비가 이 가을에 다시금 키자니아를 찾았다. 조그만 얼굴, 늘씬한 몸매의 일곱 살 무비는 입장 전, 설레는 마음을 숨긴채 두 손을 배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90도 인사를 건넨다.

"무사를 뜻하는 호반 무(武)에 갖출 비(備)를 뜻하는 이름이에요, 무비 할아버지가 꼬박 이를 동안 사전 불독고 지으신 이름이에요."

독특한 이름답게 나름의 작명 사연이 있을까 싶어 엄마인 김주희 씨에게 물었더니 역시나다. 호연지기 정신이 물씬 풍기는 이름만큼 무비는 실제로도 남자다웠다. 체험 순서를 기다리며 툼툼이 손과 발을 이용해 태권도 품세를 잡는 무비를 보니, 부끄럼 많은 듯 보여도 일곱 살 특유의 호기심과 장난기는 숨겨지지 않는 모양이다.





법원



하우스페인팅

알록달록한 오색 페인트를 벽에 칠하는 무비



아이스크림 가게



소방서



성공적으로 화재진압을 한 무비의 능률한 모습



소방관, 판사, 요리사도 돼보고 운전면허도 취득하자

오늘은 무비의 다양한 직업체험을 위해 지난 체험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는 피자레스토랑에 취직하기. 체험의 안내와 교육을 맡은 슈퍼바이저가 아이들을 환하게 맞이하며 피자 만들기가 시작했다. 슈퍼바이저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들으며 곧잘 따라하는 무비와 아이들은 이내 동그란 반죽 위에 토핑을 얹고 치즈를 뿌렸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든 여섯 개의 피자는 오븐으로 쏙 들어갔고 아이들은 자기 번호의 의자에 앉아 떠들지도 않고 오븐에서 풍겨 나오는 고소한 피자 냄새를 맡았다. 드디어 무비의 피자가 맛있게 구워져 나왔고 무비는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 피자를 전했다. 첫 번째 단추가 썩 잘 끼워졌으니, 무비의 자신감도 한껏 충만해졌다. 자, 이제 다음 코스로 출발~

검은색 법복을 입은 무비는 옷이 의미하는 무게감을 아는지 피자를 만들 때와는 달리 의젓한 모습을 갖추었다.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 변호사, 피고인 등은 주어진 대본을 읽으며 재판을 진행하는데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 체험이라 7~8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이날의 재판은 연예인 명예훼손에 대한 것으로, 일전에 <무한도전>에서 길의 '오줌싸개' 논란에 대한 내용을 패리디한 것이다. 무비는 판사로 재판에 임했고 법봉을 세 번 '탕탕탕' 두드리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외에도 집에 페인트를 칠하는 하우스페인팅,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아이스크림 가게 등을 체험했는데 특히 무비는 소방서에 취직했을 때 가장 기운이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뽀뽀 뽀뽀~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가르자 무비의 표정도 한껏 상기됐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호텔에 도착하자 어린이 소방관들은 교육 받은 대로 건물의 고층부터 차근차근 진화를 시작했다. 곧 빨간 불이 잦빛 연기를 뿜으며 꺼졌고 슈퍼바이저와 아이들은 서로를 마주하고 씩씩하게 경례를 했다. 의협심 가득한 소방관 업무로 무비는 5키조를 벌기도 했다.

모든 가능성을 체험하는 키자니아

무비는 아빠가 넥센타이어에 다니고 있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 한글을 배우던 세 살 무렵, 자동차 바퀴가 그려진 카드를 내밀고 이게 무엇이나고 묻는 선생님에게 “타이어”라고 말했던 건 가족들이 두고두고 회자하는 이야기. 선생님은 지금껏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었다며 놀라워했다. 자동차를 보면 바퀴부터 보는 버릇과 누가 차를 샀다고 하면 “어디 타이어예요?”라는 당돌한 질문마저도 건넬 줄 아는 무비. 아빠의 직장을 아끼고 좋아하는 아들이 있어 김윤상 대리는 흐뭇하다.

오늘 마지막으로 체험할 넥센타이어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신이 나는 마음으로 기다린 이유이기도 하다. 운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바로 시험이 시작됐는데 신중하게 문제를 푸는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들마저도 사뭇 진지해져 버렸다. 무비의 시험 결과는 합격! 족석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제 이 면허증으로 키자니아 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저희 때는 무언가를 꿈꾸고 계획하는 건 그저 생각만으로 그쳤잖아요, 요즘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니 아이들이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비는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데 오늘 보니까 역시 활동적인 체험을 더 좋아하네요.”

실제로 이날 무비는 어떤 것이든 곧잘 적응하며 평균 이상의 소질을 보였다. 소방관 체험과 운전면허시험 때 유난히 집중력을 많이 보여준 것 또한 새로운 발견이다. 김윤상 대리는 넥센타이어 서울사무소의 축구팀에서 득점 순위 2등의 스트라이커라는 말을 살짝 흘리며, 부자의 뛰어난 운동신경 DNA를 강조한다. 주말이면 가족과 목동야구장에 가서 넥센 히어로즈를 응원하고, 초등학교 형들에게 이미 신뢰와 귀여움을 독차지해 함께 어울려 축구게임까지 하는 당찬 유치원생 무비. 내년엔 입학할 초등학교에서 한 마리 날다람쥐, 날렵한 제비처럼 축구 경기장을 압도할 무비의 모습이 벌써부터 환히 그려진다. 



키자니아의 직업체험을 모두 마친 후 기념사진 촬영



운전면허시험장



진지한 모습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무비





가솔린 내연기관과 더불어 자동차 시대를 준비한 것은
타이어의 발달이었다. 1888년에 아일랜드의 존 던롭은 자전거용
공기주입식 타이어를 개발했는데, 이 타이어는 이후 가솔린
자동차에도 쓰이게 된다. 1931년 미국 듀퐁사에서 합성 고무
공업화에 성공하면서 타이어의 강도는 더 높아졌고, 이는 내연기관
발달과 더불어 자동차 속도 경쟁을 가속화시켰다.

가솔린, 고무타이어 그리고 헨리 포드

가솔린 기관, 합성 고무 공업화 그리고 분업

자동차 대중화 시대가 오다

자동차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우리는 이미 환경에 해를 줄이기 위한 전기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놀라운 발전을 해가고 있지만 인류에게 본격적인 자동차 발전의 시대는 1800년대였다. 특히 가솔린 기관과 합성
고무의 공업화, 헨리 포드 방식의 분업이 시작되며 자동차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글 박진희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1480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엽과 톱니바퀴로 이루어진 '스스로 가는 차'를 자신의 수고에 남겼을 때 자동
차의 역사는 시작되었을 것이다. 물론, 다빈치의 아이디어는 그 후로도 수세기가 지난 18세기에 증기기관이 출현
하고서야 결실을 볼 수 있었다. 1769년 프랑스군의 장교였던 쿼노가 증기기관으로 바퀴를 돌려 스스로 움직이는
수레를 만드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쿼노는 물을 끓이는 보일러를 수레에 달고 보일러에서 나오는 증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피스톤을 수레바퀴에 연결시켜 바퀴를 구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첫 자동차는 구동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 했다. 속도를 내자면 보일러를 무한정 키워야 한다는 한계로 쿼노의 증기차는 겨우 5분을 달릴 수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이때부터 자동차의 역사는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증기차의 꿈을 막은 붉은 깃발법

쿼노의 증기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람이 최초 기관차를 개발한 영국의 트레비식이었다. 트레비식은 와트의 저
기압 증기기관을 개선하여 높은 압력을 내는 고압 증기기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를 이용하여 기관차
를 발명하는 한편, 마차에 이 증기기관을 장착하여 '런던 증기차'를 개발하였다. 마차 객차에 지름이 3.3m 되는
커다란 바퀴를 달고 고압 증기기관을 부착한 이 차는 마차와 나란히 런던 시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
는 승합차로 발전했다. 트레비식은 이 런던 증기차가 곧 마차를 몰리치고 새로운 탈것으로 정
착되어 갈 것이라고 보았으나 현실은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증기차 값이 너무 비싸
서 증기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고 고장도 잦아서
많은 승객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트레비식이 증기차 시연에 성공한 이후로 유사한 증기차를 만들고자 하
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1830년대에 거니라는 사람은 한 시간에 13.6km를 달릴 수
있는 증기차 제작에 성공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헨콕은 11명의 승객을 태우고 시
속 14km를 달릴 수 있는 증기 승합차를 만들었다. 이어 50명을 태울 수 있는 증
기 버스도 개발되었다.

증기차 승객도 늘고 요금도 인하되면서 증기차는 점차 마차의 지위를 위협하게 되었
다. 증기차 성능이 좋아지면서 철도가 포괄할 수 있는 영역까지 증기차로 왕복이 가능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마차업자와 철도업자들은 증기차 확대를 막기 위한 로비에 들어가게 된다. 마차업자들은 석탄을 사용하는 증기차들이 내뿜는 검은 연기에 주목했다. 시내를 질주하는 증기차들은 시내 한복판에 검은 구름을 남기곤 했던 것이다. 마차업자들과 철도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증기차의 검은 연기와 시끄러운 소리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므로 증기차의 시내 주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정부에서 제정한 ‘붉은 깃발법’에 반영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증기차는 반드시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모는 마차 뒤를 따라가야 했으며 최고 속도는 6.4km, 시내에서는 3.2km를 넘지 말아야 했다. 시속 30km를 달릴 수 있는 증기차 속도를 제한하고 보니 증기차는 마차에 비해 특별한 장점을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증기차는 저렴한 요금의 마차에 밀려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칼 벤츠, 최초의 자동차를 선보이다

증기차를 사라지게 한 것은 마차였지만 마차를 도심에서 사라지게 한 것은 가솔린 내연기관을 장착한 자동차였다. 무한정인 석탄 공급과 물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증기기관으로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기술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동력 기관을 모색하게 된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가스가 타면서 폭발하는 힘을 이용하는 ‘내연기관’ 기술이었다. 독일의 니콜라우스 오토는 이 내연기관을 자동차에 장착한 최초의 기술자였다. 오토는 가스를 흡입하여 압축시킨 후 이를 점화시켜 태워서 폭발을 일으키고 피스톤을 활용해서 이 폭발력을 바퀴 동력으로 바꾸는 엔진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가솔린 엔진의 원형인 오토 엔진이다. 이 오토 엔진은 직접 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연료 밖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 폭발로 내는 힘도 자동차 네 바퀴를 빠르게 굴리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토 엔진은 새로운 동력 기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오토 엔진의 결함을 극복하고 이 엔진을 향상시킨 이들은 고틀립 다이믈러와 빌헬름 마이바흐였다. 이들은 폭발에 활용하는 점화기를 개선하였고, 가스 대신 액체 연료 휘발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화기도 개발했다. 1885년에 다이믈러와 마이바흐는 이 내연기관을 드라이지네를 연상시키는 나무 자전거에 달고 시속 12km로 달리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최초의 모터사이클이었다. 이런 노력과 나란히 칼 벤츠는 처음부터 세 바퀴 자동차에 장착되는 내연기관 개발에 힘쓰고 있었다. 벤츠는 마침내 1886년, 내연기관을 장착한 세 바퀴 자동차를 세상에 선보였다. 이것이 최초의 자동차 특허를 받은 차량으로 이 벤츠자동차와 더불어 현대 자동차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속도 경쟁의 키, 고무타이어

가솔린 내연기관과 더불어 자동차 시대를 준비한 것은 타이어의 발달이었다. 1888년에 아일랜드의 존 던롭은 자전거용 공기주입식 타이어를 개발하였는데, 이 타이어는 이후 가솔린 자동차에도 쓰이게 된다. 던롭은 울퉁불퉁한 도로 위에서 쇠바퀴 자전거를 타고나면 머리 아파하는 아들을 위해 진동 흡수가 가능한 공기 주입식 타이어를 개발했다. 공기 타이어 제작에 필요한 고무는 이미 1844년에 찰스 굤이어라는 발명가가 가황처리 고무 제작용을 개발해놓은 상황이었다. 물론, 1848년에 영국의 로버트 윌리엄 톰슨이 고무 타이어에 공기가 들어 있는 튜브를 넣는 최초의 공기 타이어를 발명하여 증기차에 장착하는 데 성공했으나 던롭의 타이어만큼 실용적이지는 못했다. 70개 이상의 볼트를 사용해야 해서 수공제작비가 너무 높았던 것이다.

던롭의 공기 타이어를 자동차용으로 완성한 사람이 프랑스의 앙드레 미쉐린이었다. 미쉐린은 던롭의 타이어를 간편한 분해식으로 개선하는 한편, 1895년에는 파리와 보르도간 자동차 경주에 참가한 자동차에 이 공기 타이어를 처음으로 장착하는 시도를 하였다. 22차례 펑크 사고가 나는 등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공기 타이어는 자동차의 표준 바퀴가 되었다.

내연기관의 발달은 속도의 증가로 이어졌고 타이어 접지면의 매끄러움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1905년이 되면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 타이어 접지면에 일종의 발판 무늬들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이어 타이어의 고무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플라이를 구성하는 코드 재료의 발전, 구조 발전이 이루어졌고, 바퀴테와 접촉하는 비드 부분에 강철이 사용되면서 튼튼하고 수명도 오래가는 타이어가 출현할 수 있었다. 1931년 미국 듀폰사에서 합성 고무 공업화에 성공하면서 타이어의 강도는 더 높아졌고, 이는 내연기관 발달과 더불어 자동차 속도 경쟁을 가속화시켰다.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

타이어 발전과 나란히 미국의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포드는 다이믈러나 벤츠가 제작한 귀족 자동차 대신에 ‘스스로 운전하고 수리할 수 있을 만큼 작고, 디자인도 단순한, 그리고 가격도 싸서 보통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차를 제작하기로 했다. 그의 이 계획은 1908년에 ‘모델 T’의 완성으로 실현되었다. 포드의 모델 T 자동차는 조종이 간편하면서도 20마력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고, 정비도 다른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한편, 포드는 자동차 생산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와 모델 T의 가격을 당시 가격의 4분의 1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오늘날 대량생산 방식으로 알려진 새로운 생산 방식을 모델 T 생산에 적용했던 것이다. 먼저 생산 과정을 철저하게 분업화하여 노동자 저마다 하나의 자동차 요소만을 특수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도축장에서 사용하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자동차 공장에 들여와 자동차 부품들이 완성차 조립 라인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 분업과 컨베이어 벨트, 특수기계 사용은 완성차 생산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놓았다. 이전에 14시간 걸리던 자동차 제작 시간은 90분으로 줄었고, 하루에 생산되는 자동차 생산량은 몇 배로 증가할 수가 있게 되었다. 자연히 자동차 대당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포드식 생산 방식 혁명으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국민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었다. 50년대 미국 경제의 호황으로 국민 소득도 증가하면서 미국은 자동차 구매도 증가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자동차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미국식 발전은 전 세계로 퍼져갔다.

타이어와 내연기관의 발달에 기대어 자유와 진보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자동차는 이제 대기 오염의 주범,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한 세기를 풍미하던 가솔린 내연기관은 점차 전기 엔진, 하이브리드 엔진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가 자동차 발달 궤적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자동차의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19



현명하게 사고 팔면

중고차거래 10계명

너도나도 WinWin

자동차만큼 중고 거래가 활발한 소비재도 드물다. 이런 중고 시장의 발달은 신차에 욕심 많은 과장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신입사원, 갓 면허를 땀 대학생 등등 모두에게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일은 결코 아니다. 돈은 둘째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 차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신중해지는 중고차 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10가지를 짚어본다.

글 김준형 <이투데이> 산업부 기자



중고차 거래가 신차 판매와 맞먹는 시대다. 매년 150만 대 가까운 국산·수입 신차가 내수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중고차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중고차 시장은 경기현황과 신차판매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왔다. 신 모델이 나오면 구형 모델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자연스럽게 가격도 하락한다. 구형보다 못생긴 신차가 나오면 자연스레 구형차의 선호도가 오르기도 한다.

중고차 거래는 신차보다 꼼꼼하게 따져야할 부분이 많다. 신차의 경우 문제점이 생기면 A/S를 이용하면 쉽다. 반면 중고차의 경우 오너의 책임으로 고스란히 남겨지는 경우가 많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고를수록 이득을 본다. 차를 되팔 때도 마찬가지다. 못 믿을게 많은 중고차 거래라지만 필수적으로 감안해야할 부분을 알고 뛰어들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즐거울 수 있다.



1 시세 정보 파악이 최우선

신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고차 역시 구입하고자하는 차종을 미리 정해두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같은 모델이 어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고차 구매의 첫걸음이다.

다양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적정 가격 및 옵션여부 등을 파악해 원하는 차종의 최근 시세를 알아본다.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너무 가격이 싼 경우 연식과 등급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다. 신차 기준으로 출고된 지 3년이 지나면 50% 안팎의 가격을 형성한다. 인기 차종의 경우 이를 넘어서고 인기가 떨어지는 모델은 50% 미만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편이다. 적어도 2~3주 정도 해당 모델의 매물과 거래성사 여부 등을 살펴보면 적정 가격을 가늠할 수 있다.

2 사고차 피하면 절반은 성공

중고차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사고차를 피하는 것. 사고가 크면 클수록 후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휠 얼라인먼트가 맞지 않아 핸들이 틀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무사고차의 경우 이를 쉽게 바로잡을 수 있지만 사고차의 경우 이를 교정하기 쉽지 않다. 요철이나 과속 턱을 넘어설 때 '삐거덕' 거리는 잡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차를 구입할 때 경험이 많은 지인 또는 중고차 인증업체를 통한 매매 등으로 사고차를 피할 수 있다.

3 윈도와 타이어, 공구, 소모품

4개의 윈도 구석을 살펴보면 해당 유리의 일련번호 또는 제조시기 등을 표기한 스티커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 4도어 세단의 경우 이 유리에 붙어있는 스티커 가운데 하나가 다르다면 유리 파손으로 인한 교환을 의심해볼 수도 있다. 타이어와 휠도 살펴야 한다. 타이어 옆면에 네 자리 숫자는 제조일자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1107이라고 표기된 것은 '2011년 7번째 주에 생산된 제품'임을 의미한다. 트렁크를 열어서 차에 필요한 공구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수. 자칫 별 것 아닌 듯하지만 훗날 필요에 의해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경우도 빈번하다.

4 경미한 사고는 오히려 반갑다

중고차 구입에서 사고차를 피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경미한 사고차의 경우 주행성능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상태 좋은 모델을 비교적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도어와 앞뒤 범퍼 등에 수리한 흔적 정도가 남아있다면 오히려 동급 매물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사고로 네 바퀴의 위치가 조정됐거나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 주요 파워트레인을 탈거한 흔적이 없다면 주행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압류와 저당 여부를 살펴라

만족할만한 중고차를 골랐다면 이 차를 아무 탈 없이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사람에게 주민등록표가 있듯 자동차에도 출고 이후 등록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을 알아볼 수 있는 차량등록원부가 존재한다. 이 경우 명의자 변경이나 압류, 저당 설정 등의 이력이 담겨있다. 예를 들어 리스차의 경우 등록증 상의 명의가 리스사로 되어있고 할부차의 경우 차량 명의는 전 주인으로 되어 있지만 등록증 아랫부분에 할부사의 저당설정 등이 기록돼 있다. 등록원부까지 살펴보면 세금미납과 주차위반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압류 등이 걸려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꼭 확인해야한다. 자칫 전주인의 과오로 남겨진 금액이 나에게 주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6 완성차 메이커의 인증중고차?

수입차의 경우 해당 메이커가 선보이는 인증중고차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증중고차란 특정기간(3년) 이내의 모델로 해당 메이커의 자체적인 안전 및 품질 기준을 통과한 차들이다. 적정 가격은 물론 인증중고차를 통해 판매한 모델을 자체적으로 일정기간 A/S 해주는 경우가 많아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BMW를 시작으로 몇몇 수입차 메이커가 인증중고차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7 가을엔 여름 폭우 침수차 피해가기

가을철 중고차 고르기에 있어서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침수차 피해가기다. 침수차의 경우 일반인은 물론 중고차 전문가 역시 쉽게 골라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꼼꼼하게 여러 번 살펴야한다. 먼저 침수차를 골라내는 첫 번째 방법은 보험개발원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다. 둘째 침수 후 건조시켰다해도 실내에는 곰팡이 흔적이나 악취가 남아있으므로 악취여부를 확인해보자. 과도한 방향제 사용 흔적도 의심 가는 부분이다. 안전벨트는 침수차 구분에서 가장 중요하다. 벨트를 끝까지 당겨보면 진흙이 남아있기도 하다. 이밖에 시트 밑이나 옷걸이, 시트를 비롯한 내장재의 변색 여부도 침수차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8 보증기간 구입해 새차 같은 중고차 즐기기

아직 수입차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보증기간을 별도로 구입할 수도 있다. 수입차를 중고차로 고를 경우 해당 메이커의 품질기준을 통과한 모델에 한해 보증기간을 별도로 구입할 수 있다.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된 차가 아닌 이삿짐 등으로 들어온 차들도 이 같은 보증기간을 별도로 구입하면 해당 보증기간 내에 일어난 고장의 경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차 가격이 비쌀수록 이 같은 보증기간 구입제도가 활성화됐고 수입차업계 전반적으로 이 같은 중고차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다. 자칫 수입 중고차 구입 후 벌어질 수 있는 과도한 비용지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9 순정상태 유지하면 훨씬 잘 팔려

차를 구입하는 것 못지않게 차를 잘 파는 방법도 중요하다. 먼저 가장 인기 있는 중고차는 과도한 튜닝보다 순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다. 도색은 물론 휠과 타이어 등이 순정상태와 달리 튜닝했다면 중고차 시장에서 임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만일 차의 휠, 타이어와 오디오 등이 애프터마켓 용품으로 교체돼 있다면 이를 중고품으로 되팔고 순정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유리하다. 때문에 보관만 가능하다면 튜닝 시 기존의 순정품을 갖고 있는 것이 차를 되팔 때 도움이 된다.

10 개인 간 직거래의 맹점

적당한 가격에 새 주인을 만나 차를 넘겨주었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 새 주인에게 넘겨주었음에도 그가 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세금과 과태료 등이 나한테 넘어올 수 있다. 최근 이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명의이전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서류를 챙겨 지자체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강제 명의 이전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도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증된 중고차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하거나 이전을 위해 새 주인과 전 주인이 함께 등록사업소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해가 반짝, 신우카정비공업사 희망도 반짝

| 글 차승진
사진 류병문



기막힌 타이밍이다. 취재진이 들어서자 고객들이 몰려 오기 시작했다. 덕분에 신우카정비공업사 이승만 대표만 주해했다.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이건만, 그의 이마엔 어스새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다. 시간을 잘못 골라왔나 싶어 초조하게 서성이던 찰나,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친절함 응대에 성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리기로 했다. 급한 몇 가지 일을 슈퍼맨처럼 후딱 처리하고 나타난 이승만 대표는 해님 같은 환한 미소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신우카정비공업사를 오픈한 지 벌써 8년째네요, 그동안 정비와 경매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24시간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약 2년 전부터 타이어를 취급하게 됐는데 저에겐 복덩이죠, 매출이 많이 늘어서 이제는 정비와 타이어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신우카정비공업사의 단골 비율은 무려 70%, 근처 정비업소만 10여 곳에 타이어 전문점도 2곳이나 위치한 전쟁터와 같은 여건을 생각해볼 때, 어마어마한 수치다. 특히 여성 단골고객의 비율이 높다. 아마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이승만 대표의 친절 마인드가 비결이 아닐까.

“여성 고객들은 차에 대해 상세하고도 쉬운 설명을 원합니다. 상대적으로 정비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적으니 차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모르거든요, 고객의 정보와 스타일에 따라 눈높이 설명을 하고 자동차 상태를 알려 드립니다. 또한 타이어를 취급하면서부터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들렀다가 정비까지 맡기는 고객이 많아 앞으로도 단골고객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날 거라 예상합니다.”

이승만 대표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신우카정비공업사를 이끄는 두 번째 바퀴이자, 이승만 대표와 척척 호흡을 자랑하는 손창국 부장. 아침 7시부터 청소는 물론 고객 맛을 준비를 완벽히 한다는 그가 있어 더없이 든든하다. 사장인 자신보다 더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직원과 단골고객이 있으니 앞으로 이승만 대표의 앞날도 탄탄대ろ가 아닐까. 신우카정비공업사의 내일엔 반짝이는 희망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㉞

4th
Green
Story

자연에서

배우다
놀다
만나다
맛보다

가장 먼저 나타나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은행나무

은행나무과의 잎지는바늘잎 '몬키나무' (Ginkgo biloba)

은행나무는 공룡이 살았던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처음 지구에 나타난 때가 약 3억 년 전. 가장 먼저 나타나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기만 한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가장 친근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을이면 온통 노랗게 길을 물들이니 괜히 길가를 서성이며 사색하게 만드는 나무기도 하지요. 아주 오랜 세월을 묵묵히 저 내온 이 원숙한 나무는 올 가을에도 밀려드는 사람들을 포근하게 받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이 주는 선물, 행복

마음까지

치유하는

자연의 힘

| 글 유기현
동아시아연구소 기자

건강하라는 인사를 흔히 주고받는다. 얼핏 생각하면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몸 건강이 먼저 떠오르는데 요즘 같아서는 오히려 마음 건강을 더 걱정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스트레스로 가득한 일상과 풀어버리기엔, 부족한 마음의 여유까지 행복을 느끼기엔 장애물이 너무 많다. 그래도 다행인 건 언제나 우리 위로할 준비가 된 자연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자연의 선물, 상상 그 이상

회사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TV를 켜고 놓는 게 평일 일과인 김모 씨.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돌아와 리모컨 버튼을 누른다. 마침 TV에서는 가을을 맞아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 무리가 비춰지고 있다. ‘단풍? 등산?’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 키보드를 치는 손가락 운동이 전부인 그이지만, 큰맘 먹고 주말 등산을 결심한다.

바야흐로 하늘은 높고 단풍이 물드는 계절, 가을을 맞아 김모 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직장인이 많지 않을까. 하루 최소 5시간 이상 업무용 모니터를 바라봐야 하는 직장인들은 심신(心身)이 피로하다. 어디 이뿐이라. 개인용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야외활동을 하는 시간보다 가만히 앉아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 그러는 사이 정신적,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간다.

작은 화면에서 벗어나 잠시 주위를 둘러보자. 단풍이 곱게 물들면 등산을 나서는 사람들의 무리를 쉽게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등산로를 따라 ‘인간줄’이 끝없이 늘어선 진풍경도 볼 수 있다. 추석 연휴 때 봤던 꽉 막힌 고속도로가 따로 없다.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던 수많은 ‘김모 씨’들이 단풍구경을 나왔기 때문이다. 가을엔 단풍을 보기 위해, 봄에는 꽃을 보기 위해 산을 찾는 것만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평상시에도 자연을 찾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어떨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항상 우리의 기대 이상이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얻게 될 것이다.)

가을엔 단풍을 보기 위해,

봄에는 꽃을 보기 위해 산을 찾는 것만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평상시에도 자연을 찾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어떨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항상 우리의 기대 이상이다.

자연에서
배우다



숲 속에서 하는 행복한 목욕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동물, 식물 등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이를 모방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개의 털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식물의 열매를 보고 벨크로 테이프(일명 찍찍이)를 만들고, 물이 스미지 않는 연잎을 모방해 비가 와도 항상 깨끗한 표면을 유지하는 페인트도 만들었다. 그밖에도 첨단기술의 롤모델로 자연은 항상 빠지지 않는다.

자연이 과학자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산책, 등산 등 일명 ‘녹색 공간’에서의 활동은 몸도 건강하게 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삼림욕(森林浴)’이 그 대표적인 예다. 나무가 우거진 숲에 가면 공기부터 다르다. 바다에 가면 특유의 바다 내음이 나듯, 숲에 가면 숲 특유의 향이 있다. 촉촉한 흙 내음과 풀, 나무 내음에 기분까지 상쾌해진다.

삼림욕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나무가 방출하는 ‘피톤치드’라는 물질 때문이다. 이 물질은 인간과 동물에게 이로운 작용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식물이 각종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물리치기 위한 ‘무기’ 역할을 한다. 피톤치드의 주요 성분은 테르펜(Terpene)이라는 화합물인데, 이 물질이 공기 속으로 휘발되면서 향긋한 내음을 만들어낸다. 게다가 테르펜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Cortisol)의 분비를 감소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그밖에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피부를 소독하는 약리작용도 한다.

삼림욕은 눈 건강에도 좋다. 녹색이 눈의 피로를 덜게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녹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연두색, 풀색, 초록색, 청록색 등 다양한 녹색 중 우리의 눈 건강에 가장 좋은 녹색은 숲에서 볼 수 있는 약간은 ‘칙칙한 녹색’이다. 그 이유는 이 색의 시야각이 가장 좁기 때문이다. 시야각이 좁은 색은 눈이 잘 감지하지 못하므로 덜 자극적이고 눈의 피로도 줄여준다.

이런 삼림욕의 효과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단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이, 또 밤보다는 낮에 피톤치드가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대략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활동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피톤치드는 단풍나무, 떡갈나무 등 잎이 넓은 활엽수림보다 소나무, 향나무 등 잎이 바늘처럼 뾰족한 침엽수림에서 더 많이 발산된다. 그중에서도 침엽수림이 무성한 곳, 산 중턱 즈음이 삼림욕의 명당(明堂)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삼림욕이라도 시간을 내 숲을 정기적으로 찾기로 쉽지 않다. 그렇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2010년 5월, 물과 수목이 많은 ‘녹색 공간’에서 5분만 운동을 해도 정신 건강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영국 에식스대학 줄레스 프리티 박사 연구팀이 1,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책, 승마, 원예, 낚시, 보트타기 등 자연에서의 활동이 사람들의 기분과 자신감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그 효과는 5분 내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단 5분만 녹색 공간에서 활동해도 정신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찍고, 먹고, 생각하고, 가꾸기

찬바람이 불어오면 우울해지는 사람도 늘어나는데, 이럴 때는 잠시 야외로 나가 햇빛을 쬐자.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된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뇌 속의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기기 쉽다. 비타민 D는 고등어나 연어, 버섯, 우유 또는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지만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은 바로 자연에 있다.

그밖에도 자연에서 다양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숲 속 사찰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휴식을 얻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나 자연 속에서의 명상, 원예 가꾸기 등 자연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다. 건강한 자연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도 있다. 몇 해 전부터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이들로 요리한 음식들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물이나 미생물 등으로만 재배한 유기농 채소, 유기농 과일은 고가(高價)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레 행복감이 찾아온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돈이나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니다. 당장 점심 식사 후 근처 공원을 5분만 산책해보는 것은 어떨까. 산책하는 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더욱 금상첨화일 것이다. ㉞



평창 의야지

바람마을

양떼와 누비는 드넓은 초원

도심에서 나고 자란 아이라고 해도 자연 속에 놓일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법. 신선하게 부는 바람과 탁 트인 시야만으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가시거리 내에 모든 것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하나하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평창 의야지 바람마을에서는 평소 작은 강아지조차 무서워하는 아이도 스스럼없이 양에게 다가가 손을 내민다. 드넓게 펼쳐진 풍경과 양떼 그리고 뛰어노는 아이가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모습을 이곳에서 직접 마주할 수 있다.

| 글 노초롱
사진 이맹호



목가적인 풍경 따라 바람을 즐기다

드넓은 초지 언덕을 넘어오는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단지는 대관령의 상징. 대관령 자락에 높이 솟아있는 풍력발전기가 의야지 바람마을과 가까워졌음을 알려주는 듯 빙그르르 손짓한다. ‘의로운 사람이 많이 사는 들’이라는 뜻의 의야지 바람마을은 들어서면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지만 여느 관광지처럼 시끌벅적한 느낌과는 다른 차분함이 있다. 목가적인 풍경을 따라 마을을 거닐면 곳곳에 자리한 체험장을 만나는데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반짝이며 열심이다. 체험장 옆으로는 짙은 색을 입은 배추밭이 드넓게 펼쳐져 눈을 정화시켜준다. 이 배추밭은 9월 중순이면 감자밭과 당근밭이 되어 아이들 농촌 체험의 장으로 변모한다.

해발 750m의 대관령면 최정상부에 위치한 의야지 바람마을은 전국의 농촌체험마을 중에서도 해마다 찾는 이들이 가장 많은 우수 농촌 체험마을로 손꼽힌다. 풍경이 주는 아름다움도 멋스럽지만 이색적인 체험 요소를 두루 갖춰 사계절 내내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 양목장 체험이나 비누 만들기, 치즈 만들기와 같은 연중 체험과 딸기 농장, 눈썰매 등 각 계절 나름대로 특색 있게 꾸며 지루할 틈이 없다. 휴가 때 가족 단위도 많이 찾지만 외국인 방문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이곳이 강원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중국어와 일본어, 그밖에 외국어들이 다양하게 들린다.

양떼 목장을 지나 언덕으로 올라서면 시원하게 펼쳐진 초원이 가슴을 뻥 뚫리게 한다. 나무로 이어 만든 그네와 트로이 목마까지는 아니지만 엇비슷한 느낌을 주는 큼지막한 목마가 이국적인 자태를 뽐낸다. 저 멀리 천천히 움직이는 대형 바람개비가 마을을 한결 가뽏하게 만들어 주는 사이 언덕에는 마을 이름처럼 신선한 바람이 분다.

자연에서
놀다

내 손으로 만드는 치즈를 맛보다

치즈 만들기 체험장에는 때마침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체험을 와 왓자지껄 분주한 모습이였다. 벌써 양떼목장을 둘러보고 왔는지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지만 아이들은 지치지도 않는 모양이다.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빙 둘러앉은 책상 가운데 대관령 목장에서 짠 신선한 우유가 준비되면 강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천천히 우유를 저으며 끓인다. 화창한 날씨에 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무엇을 해도 재미있다는 듯 입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우유를 젓다가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동해바다의 간수를 붓고 다시 젓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과연 치즈가 완성될 수 있을지 고개가 절로 가우뚱 해진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지만 아이들은 판짚 하지 않고 선생님을 곧잘 따라서 다음 단계를 적절해 보인다. 치즈에 대한 설명도 듣고 퀴즈도 푸는 동안 어느 정도 몽글몽글하게 우유가 굳으면 불을 낮추고 식초와 첨가물을 넣은 뒤 모양틀 안에 거름포를 넣고 꽃과 잎, 견과류 등으로 틀 바닥 장식을 한다. 떠오른 우유 덩어리를 틀 안에 붓고 뚜껑을 덮어 눌러 물기를 짜면 드디어 치즈 완성. 주스와 함께 치즈를 시식하는 아이들 곁에서 살짝 맛을 보니 맛도 모양도 두부를 연상케 한다. 꽃으로 장식된 웰빙 수제 치즈, 맛은 오묘할지 몰라도 직접 만든 그 자부심만은 남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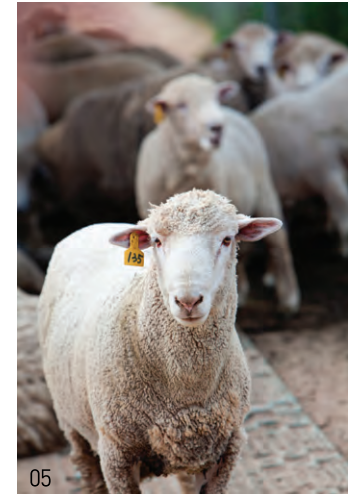


01 꽃과 잎으로 치즈를 장식하는 아이들
02 치즈틀을 뒤집으면 말랑말랑한 치즈 완성
03 천연색소와 입욕제를 넣고 비누 만들기
04 엄마, 아빠와 함께 신나는 사륜 오토바이 체험
05 사람들의 손길에 익숙한 순한 양
06 언덕을 굴러내려오는 짜릿한 빅볼 체험



★ 찾아가는 길

영동고속도로 황계IC 황계톨게이트(우회전) → 황계방면 → 황계로터리(대관령 목장방면 좌회전) → 황계교(좌회전) → 의아지 바람마을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2리 141
홈페이지 : <http://windvil.com>
숙소 : 마을 펜션에서 숙박 가능
문의 : 033-336-9812~3



★★ 아이들이 좋아해요

- 비누 만들기 체험 : 천연재료와 아로마오일을 넣은 비누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 양초 만들기 체험 : 알록달록한 색들을 투명 유리컵에 담아 양증맞은 양초를 만들 수 있다.
- 사륜 오토바이 체험 : 아름다운 의아지 바람마을 풍경을 감상하며 다양한 코스를 즐긴다.
- 빅볼 체험 : 빅볼을 타고 언덕을 구르며 내려오는 빅볼 체험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짜릿하게 즐길 수 있다.



순한 양과 눈을 맞추고 손을 내밀다

의아지 마을의 손꼽히는 대표체험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양목장이다. 양 먹이 주기와 양털 깎이 체험을 해볼 수 있어 단연 인기 코스. 털이 많고 통통하게 생긴 양들은 모두 털을 깎는 메리노종으로 동화책에서만 보던 양을 직접 만난 아이들은 마냥 들뜨고 신기해한다. 처음에는 양에게 다가가는 것을 겁내지만 양이 먹이를 순순히 받아먹는 모습에 이내 마음을 놓아버린다. 양에게 먹이를 주겠다고 건초며 사료며 한 움큼씩 욱심내서 받아드는 아이의 얼굴에는 제법 진지함이 흐른다.

양은 종족 내의 서열 다툼은 있어도 사람에게서는 한없이 온순한 동물이다. 초지 안에 어린 아이 혼자 들어가 놀아도 다칠 위험이 없을 정도. 새끼 때부터 직접 우유를 먹여 키웠다는 어린 양 한 마리는 애완견처럼 갇은 애교를 부리며 아이들의 손길을 독차지했다. 스스럼없이 양의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머리도 쓰다듬는 아이들의 얼굴은 마냥 해마다.

양목장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양털 깎이 체험은 20명 이상의 단체일 때 일인당 천 원의 가격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데 한 마리에 보통 20분 정도 소요된다.

건초와 옥수수, 밀 등의 곡물로 만든 사료를 먹던 양들은 해가 질 무렵에야 푸른 초지 언덕으로 올라가 싱싱한 풀을 뜯는데 아쉽게도 낮에는 그 광경을 보기가 어렵다. 양들이 한 번 언덕으로 올라가고 나면 웬만해서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 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르르 따라가는 습성이 있는 까닭이다. 해가 질 저녁 무렵 언덕으로 올라간 양들은 대관령의 싱그러운 바람과 푸른 초지를 만끽하며 여유를 즐긴다.

양들에게 먹이 주기에 여념이 없는 아이와 한없이 푸르고 드넓은 초지가 아름다운 풍경을 장식하며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곳, 의아지 바람마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순수한 눈높이를 맞춰주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㉞

내 위 속의 지구, 내 입 안의 우주

고기 없는 월요일

이현주 한약사

|
글 차승진
사진 류병문

큰일이다. 기린한약국 이현주 한약사를 만난 이후, 고기에 눈길이 잘 가지 않는다. 30여 년 길들여진 입맛이 있어 입은 원하는데, 마음은 오늘 하루는 참 아보자고 부추긴다. 몸이 건강해진다는데, 지구가 살아난다는데 이보다 더한 유혹이 어디 있을까. 순하디 순한 줄만 알았던 채식의 치명적인 유혹이다.



환한 인상, 맑은 기운의 비밀

위를 좀 앓았다. 의사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맵고 짭 음식의 섭취 그리고 운동부족이 원인이라 했다. 다 맞는 말이었다. 기린한약국 이현주 한약사를 만나러 가는 길, 삼일 째 멀건 흰죽만 먹은 터라 몸이 종잇장처럼 얇아진 듯 했다. 채식처방을 하는 한약사이자 ‘고기 없는 월요일’을 이끄는 이현주 한약사. 어찌 보면 참 적절한 시기에 만난 인터뷰이었다. 도착한 곳은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채식식당 ‘산들바람’. 조금 일찍 도착한 탓에 적당한 사진장소를 둘러보다 마침 고개를 돌렸는데, 유리문을 가운데에 두고 이현주 한약사와 눈이 마주쳤다. 사전에 인터뷰 준비를 하며 그녀의 얼굴을 사진으로 익힌 탓일까. 마치 지인을 만난 것 마냥 저도 모르게 덩석, 아는 체를 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래 알아온

이처럼 정다운 기운과 환하고 맑은 인상. 얇은 나무처럼 가는 몸태였지만 단단한 뿌리를 지닌 듯 정갈하고 곧은 선은 7년째 채식을 하고 있다는, 조금은 낯선 이력을 생생하게 증명해보였다. 이는 목소리도 마찬가지. 조곤조곤 낮은 파동으로도 깊게 울리는 목소리엔 오래 고민하고, 오래 공부하고, 또한 오래 실천해온 사람 특유의 확고함이 어려 있었다.

국내 최초로 한방채식 한약국, 기린한약국을 열다

처음 만난 이와 무릎을 맞대고 앉아 음식을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서로 안면도 익히기 전에 숟가락과 젓가락부터 든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양념처럼 더해진다. 하지만 갖가지 채식 메뉴로 구성된 뷔페를 나란히 한 바퀴 돌고 각자의 접시를 들고 자리에 앉자,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채식의 시작’으로 방향을 잡아나갔다. 주제와 상황에 부합한 적절한 물꼬였다.

“한약학과 졸업 무렵에 고민이 많았어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어떤 한약사가 되어야 하나 고민이었죠. 그때 한 선배가 추천한 게 바로 채식이었어요. 매일 채식을 하면서 금강경 원문과 해석을 한 번씩 쓰라고 했죠. 선배의 말이 어떤 규범이라도 된 것 마냥 그날부터 무작정 따랐습니다. 고기는 물론 달걀과 유제품, 생선 등을 먹지 않았고 오신채(파, 마늘, 부추, 달래, 홍거)도 피했습니다. 그리고 채식에 대한 공부도 같이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 서서히 눈앞에 길이 보이더라고요, 국내 최초로 한방채식 한약방인 기린한약국을 열게 됐죠.”

자연에서 만나다





어떻게 단번에, 고기를 비롯한 달걀, 우유, 생선 등을 끊을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그만큼 간절했노라고 말했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길을 견고자 하는, 치열하고 독한 고민은 채식의 순한 세계로 들어서면서 깊어지고 넓어졌다. 단순히 한 사람이 먹는 취향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지고 그녀의 혀는 더욱 예민해졌다.

“햄버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 1.5평의 숲이 사라집니다. 이미 아마존 열대우림의 70%가 동물 사육지나 사료용 곡물 재배농지로 변했어요. 숲이 사라지면 숲에 기대 살던 다양한 생물종이 사라지고, 기후변화도 가속화됩니다. 우리는 이미 올 여름을 지나며, 유례없는 폭우와 폭염을 겪었고 기후변화의 무서움을 실감했잖아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소우주’라 비유되기도 한다. 그러니 인간이 먹는다는 행위 역시, 단순히 개인적인 일만은 아닐 것이다. 먹기 위해 자연의 흐름을 지나치게 거스른다면, 어딘가는 끓고 터지게 되어 있다. 이현주 한약사가 비단 자연과 지구만 앞세우며 채식을 권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몸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오감을 깨우는 에너지가 채식에 있음을 설명한다. 기린한약국이 100% 순식물성 한약재만을 사용하는 한방채식 한약국인 이유, 그녀가 ‘힐링 캠프’를 운영하며 한방채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이유가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 중 동물성 한약재는 20여 종, 식물성 한약재는 260여 종에 이릅니다. 보통 보약이라고 하면 녹용이나 사향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 식물성 약재가 훨씬 많은 거죠. 동의보감에도 순식물성 약재만으로 구성한 보약 처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채식 혹은 식물성 한약재만으로 과연 힘을 쓸 수 있을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하메드 알리도 채식 주의자란 사실을 아시나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역시 채식하는 과학자였습니다. 신체 건강과 뇌 건강 모두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지요.”

그래서일까. 아토피나 비염 등으로 기린한약국을 찾은 꼬마손님들 중엔 채식식단으로 바꾸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것은 물론 키가 부쩍 커지나 뽀얗게 살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 단, 이현주 한약사는 한 가지 당부를 잊지 않는다. 최소한 3개월은 그녀의 처방에 따라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바꾸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 약으로 한 번에 고치는 처방이 아니기에, 몸이 적응하고 정화되는 시간은 필수다.



고기 없는 월요일은 지구를 위한 날

채식식당에서 기린한약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가 따라주는 몸에 좋은 한방차를 마시니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졌다. 차의 빛깔이 너무 맑아서 마치 하늘을 굽어보고 있는 듯 했다. 잠시 사진 촬영을 하는 사이 그녀가 내어준 팸플릿을 살펴봤다. ‘지구를 위한 아름다운 실천, 고기 없는 월요일’ 팸플릿이었다. 자동차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보다 고기 소비를 반으로 줄이는 게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더 효과적이다. 채식식단은 비프스테이크 한 접시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분의 1에 불과하다.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한 라젠드라 파차우리 국제기후변화회의(IPPC) 의장의 말이다. 이현주 한약사는 ‘고기 없는 월요일’ 대표다. 그렇다고 그녀가 고기 먹는 이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일주일 내내 채식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주일에 하

루쯤은 고기를 먹지 말자고 제안한다. 별 거 아닌 일 같지만, 이를 실천하면 자동차 500만 대가 멈추는 효과를 발휘하고 1인당 2,268kg의 CO₂를 감축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하루는, 내 몸과 지구를 위한 날이 되는 것이다.

“기후변화, 온난화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일이 정부와 기업의 몫만은 아니겠지요. 채식, 가축의류 입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자신의 몸을 보하면서 지구를 위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문득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들었다. 위를 앓는 며칠 내내 입맛이 없었는데, 어딘가 몸 안의 기운이 바뀐 모양이다. 그녀처럼 채식을 당장 생활화한다는 성급한 약속은 할 수 없다. 다만, 일주일에 하루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무언가 맑아지고 싶은 날, 그 맑음을 내가 밭 디딘 곳으로 조금 넓혀보고 싶은 날, 그런 날이 일주일에 하루쯤은 있을 테니 말이다. ㉞



“기후변화, 온난화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일이 정부와

기업의 몫만은 아니겠지요.

채식, 가축의류 입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자신의

몸을 보하면서 지구를 위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달콤하게 무화과 vs 아오리사과

무르익다

가을이란 단어만으로도 향긋하다. 여름내 뜨거운 별을 고스란히 받아가며 달콤하게 더욱 달콤하게 살을 찐 과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매 몇 개를 얻어 가을 요리 속에 풍덩 빠뜨렸다.

요리&스타일링 박용일(Stylish yong)
어시스트 남경현
사진 이맹호 진행 허은경

달콤한 가을맛 무화과 치즈푸딩

준비하기

무화과 1개, 크림치즈 100g, 미지근한 우유 170g, 설탕 20g, 달걀노른자 2개, 바닐라에센스 약간

만들기

- 무화과는 물수건으로 닦은 후 세로로 길게 4등분한다.
- 불에 실온에 둔 크림치즈를 넣고 거품기로 저어 준 후 설탕을 2~3번 나누어 섞어 크림화 한다.
- ②의 설탕이 어느 정도 녹아 섞이면 달걀노른자를 넣어 섞는다.
- ③의 불에 미지근한 우유와 바닐라에센스를 넣고 한 번 더 섞어 오븐용 용기에 붓는다.
- ④의 재료에 ①의 무화과를 올려 150℃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30분 정도 구워낸다.

새콤한 가을맛 아오리졸임 샐러드

준비하기

아오리사과 2개, 잎채소 120g, 설탕 1/2
컵, 시나몬스틱 1개, 물 3컵 정도
소스 : 플레인 요거트 3큰술, 레몬즙 1
큰술, 올리브오일 2작은술, 소금·통후추
약간씩

만들기

- 아오리사과는 깨끗이 씻어 물과 설탕, 시나몬스틱을 넣고 약한 불에서 15분 정도 졸인다.
- ①의 아오리사과는 꺼내어 식힌 후 적당한 크기로 썰고 잎 채소는 깨끗이 씻어 한입 크기로 자른다.
- 그릇에 ②의 재료를 가지런히 담고 불에 분량의 소스재료를 넣고 잘 섞어 곁들인다.

자연에서
맛보다



올 가을
예뻐지고
싶으신가요?

답이 멀러 있지 않다. 가을 들판에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어가는 가을 과일이 그 비밀의 열쇠. 미모에 관한 욕심이라면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라 해도 섭섭하지 않을 클레오파트라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비책을 사용했는데 그가 가장 좋아했던 과일이 바로 무화과다.

가을 과일인 무화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영암, 신안, 고흥 등지에서 주로 재배한다. 놀랍게도 특유의 항균성분이 벌레를 쫓기 때문에 농약을 치지 않고 기르는 과일이다. 먹을 때에도 물에 씻지 않고 물수건으로 속속 먼지를 털어내 껍질째 먹는다.

무화과는 동의보감에도 실렸을 만큼 몸에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자줏빛 껍질 색소에는 폴리페놀이 함유돼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효과를 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 성분, 비타민C와 B, 칼륨, 나트륨 및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다. 특히 피신이라는 소화효소가 함유되어 고기와 잘 어울린다. 다만 저장성이 약해 제철에만 반짝 맛볼 수 있으니 역시 콧대 높은 여성의 과일이다.

가을 사과 또한 미모라면 빠질 수 없다. 아침 사과는 피부에 금이라고 하지 않던가. 클레오파트라는 여행길에도 당나귀를 끌고 다니며 우유 목욕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우유 안에 든 AHA라는 성분 때문이다. 목은 각질을 없애 뽀얀 안색과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키는 AHA는 사과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클레오파트라가 진짜에 이걸 알았다면 당나귀들이 고생을 덜하지 않았을까?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허리케인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처럼 작은 실바람을 크나큰 장풍으로 만드는 이들이 있다. 카두업 마산점의 김태우 대표와 그의 직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 더욱이 다들 준수한 외모를 자랑하니 매장 분위기가 더욱 훈훈하다.

"직원들 뽑는 기준은 하나, 저보다 잘생겨야 할단 겁니다!"

농담을 건네는 김 대표의 말처럼 직원들은 좋은 인물만큼이나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친절하고 깔끔하다. 9년째 타이어 업계에 몸담으며 꾸준히 성장해 온 김 대표의 예리한 눈썰미로 뽑은 직원들이니 그 능력이야 두 말할 필요가 있을까.

차를 업그레이드 시킨단 뜻의 '카두업'을 오픈하면서 김 대표는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신념으로 지난 2년을 꾸려왔다. 한번 들른 고객에게도 신뢰를 얻기 위해 김 대표는 고객들의 불편·불만 사항을 바로바로 없애주는 즉각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꾀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홍보 전략을 구사한다. 김 대표가 직접 제작한 로고 디자인이 새겨진 티셔츠를 만든 것도 그 중 하나. 작년에는 200개, 올해에는 800개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선물했고 이는 걸어 다니는 광고판이 되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정확히 팔아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광고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는다고.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답게 김 대표는 고객과 직원 모두가 서로를 웃으면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헤어지는 사이가 되고자 한다. 웃음을 나눈다는 것은 정과 신뢰까지 함께 나눈다는 뜻이니 말이다. 김 대표가 일 잘하는 직원보다 친절하고 열정과 패기 넘치는 직원을 더욱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 꾸준한 매장을 더 늘려가는 카두업이 되길 바란다는 김 대표는 자신과 같은 길을 함께 갈 직원들에게 에너지파처럼 힘이 넘치는 한 마디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서로 윈윈하는 카두업이 되자! 화이팅!" ¹⁰

실바람이

카두업 마산점

장풍으로 변신!

| 글 안성은
사진 이맹호



청도공장에

끈기와 패기로 뚝뚝 뚫친 글로벌생산지원팀

주인의식을 심다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실적과 함께 전 세계 약 130개국에 250여 달러를 가진 넥센타이어. 이제는 실질적인 글로벌 기업이라해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남 양산 본사와 중국 청도공장에 이어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창녕공장을 건설, 세계 10위권 타이어사로 도약하기위해 달리고 있다. 이런 넥센타이어의 폭풍 성장 뒷면에는 바로 이들, 글로벌생산지원팀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글 박수현 인사팀
사진 이맹호



김석규 팀장
글로벌 생산지원 체제 및 구축
팀업무 총괄



문병덕 과장
해외공장 현지화 지원



김영진 차장
신설공장 지원계획 수립 및
공장 간 Communication



오세두 과장
중장기 지원전략 수립 및
공장별 생산능력 검토



박우람 대리
공장 간 설비효율 관리 및
각종 Tool/물품 지원



여선화 사무원
행정 지원업무



장석주 대리
공장 간 기술인력 지원 및
중국현지관리자
연수 프로그램 관리

포기하지 않아야 진정한 도전이다

신설공장은 품질 의식 수준이나 기술 표준, 시스템 등에서 부족한 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빈틈을 찾아 공장의 초기 정상화를 돕는 팀이 바로 2010년 김석규 팀장을 중심으로 모인 7명의 글로벌생산지원팀. 이들은 필요한 인력 및 TOOL, 기술 자료 등을 제공하고 설비의 개조개선 작업을 도우며, 현지 채용인의 마인드 양성 및 조직 체계 활성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한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롤모델이 없는 신생팀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고민이 많았죠. 하지만 기준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무언가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도 된다고 생각하니 새로운 도전이 되었죠.”

글로벌생산지원팀에 처음 맡겨진 일은 당시 신설된 중국 청도 공장 현황파악이었다. 2008년 1월 완공되어 52만 8,925㎡(16만 평)의 생산공장과 연구개발센터로 이루어진 청도공장은 25년차 공장인 양산공장에 비해 설비나 기술력 등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글로벌생산지원팀은 보름가량 청도공장에서 생활하며 현장에서 직접 경영지원, 생산기술, 설비관계 등을 보고 듣고 정보를 수집했다.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다. 주인의식이라는 개념이 없는 현지인들의 마인드도, 해당분야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것도, 의사 전달의 어려움도 모두 난관이었다. 그러나 모두들 포기하지 않았다. 글로벌생산지원팀원들은 시행착오는 당연한 과정이라 여기고 서로를 독려했다. 팀원들은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주재원들까지 동참해 교육을 반복했다. 그렇게 서너 달쯤 지났을까. 어느새 청도공장이 변하고 있었다. 완제품의 불량률이 줄고, 생산량이 증가했다. 현지 채용인들의 마인드가 바뀌며 청도공장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김석규 팀장은 그 때를 가장 인상 깊은 순간으로 꼽았다.

“설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파견한 인력이 거뜬히 해결한다거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중에서도 현지 채용인들이 글로벌생산지원팀 덕분에 일하기도 수월해지고 설비 가동률도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전해오면 정말 뿌듯하지요.”

까다로운 유럽과 북미를 만족시킨 품질

글로벌생산지원팀이 청도공장에 가장 주력한 분야는 바로 생산성과 품질이었다. 불량률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도 되지만 무엇보다 MADE IN CHINA의 고정관념에서 벗

어나고 싶었다. 인력, 기술, 설비 등 아낌없는 지원을 펼친 결과 청도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은 상당히 우수해졌다. 현재 청도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중국 내수에 10%, 중국 OE에 13% 가량 공급되고 그 외에는 유럽과 북미로 수출된다. 이는 유럽과 북미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할 정도로 타이어 품질이 좋다는 의미다. 올해는 청도공장 성형공정의 생산성과 작업 표준을 양산공장만큼 올려놓을 작정이다. 성형공정의 수준이 올라가면 전체 공정의 수준도 오르게 된다. 따라서 현재 91%의 청도공장 가동률을 95%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성형공정의 업그레이드가 필수다.

또 올 들어 청도공장의 주재원을 41명에서 26명으로 절반가량 줄일 만큼 현지 인력의 실력이 늘었다. 설비도 증설돼 내년에는 3만 개까지 생산량이 늘어날 예정이다.

“유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은 현지 채용인들이 현장 조직, 품질 조직 등을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잠시 머물렀던 주재원에 의존도가 높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현지 채용인 중 약 20여 명의 과장, 부서장들을 본사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8차 교육이 끝난 상태로 앞으로 조장과 반장의 연수 계획도 진행되면 자립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재원이 없어도 스스로 돌아가는 청도공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TPM 활동도 시작했다. 이제 겨우 제조현장의 생산성, 로스절감, 현장 정리정돈의 1스텝에 들어섰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몰라보게 깨끗해졌다. 지난 5월부터 전문 컨설턴트 서복수 지도위원이 투입되었으니 보다 계획적인 TPM 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청도, 창녕을 넘어 이제는 세계로

글로벌생산지원팀은 각종 분야의 전문 인력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생산기술전문가, 설비전문가, 안전·소방전문가, TPM 전문가 등등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든든한 팀이다.

“먼저 저희가 준비되어야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항상 긴장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세미나도 개최하고,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2012년부터 가동될 창녕공장의 지원도 글로벌생산지원팀의 몫이다. 현재 창녕공장은 설비가 90% 이상 들어간 상태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기술지원이 들어갔다. 창녕공장은 최첨단 자동화 공정으로 최종적으로는 연간 2,0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고유가시대에 대비해 저연비 성능을 갖춘 하이브리드용, 전기자동차용, 친환경 타이어 등 미래형 타이어군을 연구 생산할 계획이므로 정상화만 된다면 경쟁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창녕공장 신입사원들은 3기까지 OJT 교육이 완료된 상태이며 창녕공장에 맞는 새로운 교육도 검토 중이다. 각종 설비에 관한 사전 테스트와 재료, 인력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그 밖의 기술 자료나 전반적인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11년. 그리고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2012년. 글로벌생산지원팀은 아직 실 수가 없다. 하지만 힘들지 않다. 그들의 땀방울은 세계 10위권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넥센타이어의 발판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들의 파이팅이 힘차다. ㉞

서너 달쯤 지났을까.

청도공장이

변하고 있었다.

완제품의 불량률이 줄고,

생산량이 증가했다.

현지 채용인들의

마인드가 바뀌며

청도공장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김석규 팀장은

그 때를 가장 인상 깊은

순간으로 꼽았다.



찰칵!

재료파트 유경열 직장 가족과 함께

포토제닉 가족의 탄생

재료파트 유경열 직장은 토끼 같은 두 딸 사랑이 유별난 딸바보 아빠. '김치'를 부르짖지 않아도 저절로 빙그레 미소가 지어지게 하는 두 딸,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 김미라 씨와 색다른 오후를 보냈다.

글 허은경
사진 이맹호



어떻게 찍어도 화보 가족

부지런한 가족이 먼저 약속장소에 닿았다. 마음이 급해 부랴부랴 스튜디오로 들어서는데 가을 사과처럼 뽀뽀한 꼬마 아가씨가 배꼽 고개를 내밀어 인사를 건넨다. 유경열 직장의 차녀 지원이다. 뒤이어 제법 숙녀티가 나는 소원이도 나와 반기고 유경열, 김미라 부부도 환한 얼굴로 맞이했다. 초대를 한 쪽이 오히려 손님처럼 환대를 받고 말았다.

유 직장 가족은 혹시 늦을까, 빼놓은 것은 없을까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섰단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대부분의 가족이 그러하듯 마음 한쪽에 숙제로만 있던 가족사진이었는데 모처럼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 제대로 잘 해보자 싶었다.

역시 마음먹기에 따라 못할 일이란 없는 걸까. 가장 쉬운 포즈부터 시작해서 점점 난도를 높여갔는데 어색함이 풀리기 시작하니 이런 포토제닉 가족이 또 없다. 세련미 가득한 엄마와 말 그대로 포근한 '아빠미소' 유경열 직장은 물론이고 특히 두 공주님의 깜찍함이 사진을 사방사방 빛나게 만들었다. 첫째 소원이는 마치 어떻게 해야 자신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둘째 지원이는 TV광고 속 아역모델처럼 푹푹푹하게 제 몫을 해냈다.

아빠와 딸 셋 이야기

시시콜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유경열 직장에게 가족을 꼼꼼히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선 아내 김미라 씨는 막내딸 같은 아내란다.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한 4살 연하의 아내는 첫인상부터 차분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친해질수록 애교도 많고 다정한 성품이 더해져 반할 수밖에 없었다. 막내딸이라고 소개하는 남편과 투닥투닥 장난을 주고받는 걸 보니 아직도 연애 중인 듯 보기 좋았다.

11살 소원이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이 가족의 연예인이다. 아이돌그룹의 춤도 제법 따라할 만큼 솜씨가 좋단다. 끝으로 귀염둥이 막내를 소개했다. 단발머리를 찰랑거리며 깡충깡충 스튜디오를 놀이터 삼는 지원이다. 우쿨렐레를 치다가 고양이 인형과 이야기도 나누는 말이 필요없는 깜찍 발랄 6세 아가씨.

끝으로 가족들이 말하는 유경열 직장은 요즘 유행하는 '딸바보'라는 말이 잘 어울릴 만큼 매우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다. 일이 바쁘지만 시간이 날 때면 함께 영화도 보고 요리도 한다고.

서로를 소개하는 몇 마디 대화만으로도 깔깔깔 웃음이 그치지 않는 유경열 직장 가족. 바로 그 애틋한 가족애와 따뜻한 미소가 포토제닉 가족의 비결인 것 같다. 사진이 나오면 예쁘게 앨범으로 만들어 오래 보겠다는 유 직장 가족. <헬로우 넥센>을 환히 빛낸 예쁜 사진이 꼭 마음에 드시길 바란다. 11



통영항깡치가

김현희, 이해영 사우와 함께 걸은 통영 강구안길

참말로 짝이네

언젠가부터 통영을 동양의 나폴리라 부른다. 어쩐지 섭섭하다. 나폴리가 못났기 때문이 아니다. 굳이 낯선 외국의 유명 도시에 기대지 않아도 '통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혼자 우뚝 설 수 있는 도시니까. 김현희, 이해영 사우가 함께 걸은 강구안길은 그런 통영의 심장 통영항을 둘러싼 동맥 같은 길이다.

글 허은경
사진 이맹호



통영 강구안길
청마문학관 >
동피랑벽화마을 >
통영항 >
통영활어시장 >
중앙전통시장 >
충무김밥집 >

01 폴짝폴짝, 청마문학관의 계단을 올랐다.



01

다리품을 팔아감서로 통영항 여 저 땡기보거로

통영의 바다와 항구, 시장, 골목 구석구석에 길게 뻗은 특유의 향은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함이 있다. 여유로움과 치열함이 공존하며, 예술과 생활이 뒤섞이고 아름다움과 처연함이 영킨 묘한 도시가 바로 통영이다. 혹 '동양의 나폴리'라는 말만 믿었다가는 강구안의 풍경에 실망부터 경험할 것이다. 교과서 속 <깃발>의 시인 청마 유치환의 문학관부터 시작해, 강구안길을 따라 동피랑, 통영항, 중앙활어시장을 둘러보는 강구안길은 그림처럼 아름답기보다 통영사람의 땀 냄새 물씬 풍기는 삶의 현장이다. 강구안길을 함께 걸은 이는 PCR파트 김현희 사우와 생산관리파트 이해영 사우. 한 살 차이 동료로 일 년 남짓한 입사 일자도, 하는 일도, 취향도, 성격도 비슷한 일명 베프다. 김현희 사우는 서울은 수확여행으로 가본 게 전 부라는 부산토박이고, 이해영 사우는 포항에서 태어났지만 학교는 줄곧 부산에서 다녔으니 부산사람이나 마찬가지. 두 사람 모두 통영엔 초행이다. 서울 촌사람이 보기에 지척에 유명한 여행지를 두고 어찌 지금껏 와보지 않았나 신기하지만 생각해보면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은 어디나 매한가지 아닐까. 오히려 여행경험이 많지 않은 두 사람은 부산에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통영에서 가슴 설레는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

와 넘우집 뽕소간 꺼지 디리대고 그라도

시작점은 유치환 시인의 생가와 기념관이 있는 청마문학관이다. 극작가 유치환의 동생이기도 한 청마 유치환은 우리에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으로 시작하는 교과서 속 시 <깃발>의 주인공이다. 통영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마는 친일 행적이 밝혀지며 동상이 철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의 시 <귀고> 등에 나타난 고향 통영에 대한 애뜻한 마음은 지금도 생생히 전해



01 재치있는 그림들이 골목마다 숨어있다.

02 스펀지밥을 찾아낸 김현희 사주의 장난스런 포즈

03 동피랑에서는 통영향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진다. 특히 청마가 사랑했던 통영항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올라서니 곡절 많은 시인의 삶이 더 애달프게 다가온다. 두 사람은 시인의 편린을 한 발짝 한 발짝 밟으며 천천히 둘러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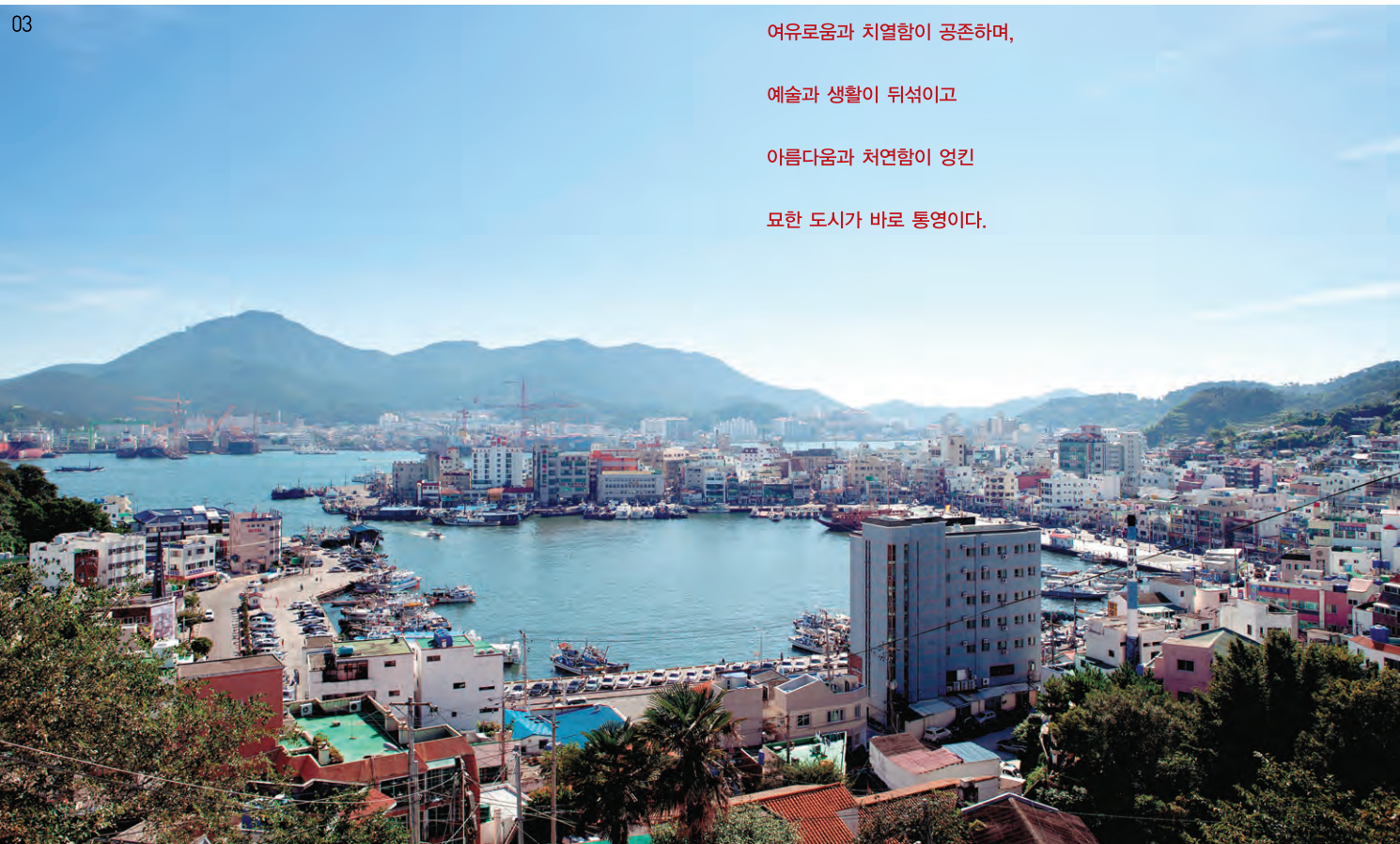
문학관에서 계단으로 내려와 차도를 따라 20분 정도 걸으면 강구안에 도착한다. 활어시장으로 가기 전 강원수산 골목으로 꺾어져야 동피랑 벽화마을 입구를 찾을 수 있다. 동피랑은 동쪽 벼랑 마을이란 뜻이다. 통영항을 병풍처럼 둘러싼 비탈 위에 다다다닥 어깨를 맞댄 곳. 외지에서 통영으로 흘러 온 날품팔이 일꾼들은 이 거미줄 같은 골목에서 쉴 자리를 닦았다. 한때 사라질 뻔한 동피랑을 지금까지 지킨 힘은 통영을 사랑하는 이들의 아이디어다. 공모전을 열어 전국의 미술학도를 불러 모았고 덕분에 벽화마을로 다시 태어나 철거 대신 가장 대표적인 여행지가 되었다. 다만 주민들은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 매일같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 주말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골목을 찾아오니 꽤나 괴로우리라. 부디 넘우집 뱅소칸 꺼지는 다리대지 마시길. 골목 벽에는 만화 캐릭터부터 물고기, 동네 주민들의 초상화까지 빼곡하다. 발랄한 두 아가씨는 물 만난 고기처럼 이곳저곳을 유영하듯 돌아다녔다. 거의 매일 붙어 다니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모두 공유하는 두 사람이지만 이런 여행은 처음이라 더욱 종알종알 이야기에 쉼이 없다. 가까운 가을별이 대수랴. 기운 넘치는 부산아가씨들 덕에 통영은 더욱 활기차 보였다.

활어시장서 폴짝거리는 과기로 회 떠 묵고

온 길을 되짚어 내려가면 다시 통영향이 나온다. 대낮의 통영항엔 새벽일을 마친 배들이 쉬고 있다. 한쪽엔 충무공 이순신의 전적지인 만큼 거북선도 있는데 관련 자료들을 전시해 가볍게 둘러볼만 하다. 그리고 항구를 따라 늘어선 상가에는 그 유명한 충무김밥집이며 꿀빵집, 건어물포, 횃집 등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뒤섞여 북적북적 활기가 넘친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통영의 삶을 들여다 보려면 나란히 붙어 있는 활어시장과 중앙전통시장으로 쑥 들어가야 한다.



02



03

통영의 바다와 항구, 시장, 골목

구석구석에 질게 뻥 특유의 향은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함이 있다.

여유로움과 치열함이 공존하며,

예술과 생활이 뒤섞이고

아름다움과 처연함이 영킨

묘한 도시가 바로 통영이다.



04

잔냄새가 좋다는 부산아가씨들이 앞장서 시장을 누빈다. 옛날 자갈치시장을 보듯 난전 행렬이 길게 이어진 시장은 아지매들과 손님의 왁자지껄한 흥정소리로 가득하다. 아직 숨털 보송보송한 두 아가씨들이야 흥정은커녕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니 구경도 힘겹다. 그나마 활어시장을 빠져나와 중앙전통시장에 오니 꿀빵 하나씩 사먹을 여유가 생겼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으니 믿고 먹어보라며 덩싹 하나를 건네는 꿀빵가게 아저씨.

“현희야, 안에 뭘데? 팔이가?”

“언니도 먹어봐라. 아이고 달다. 맛있네.”

꿀빵의 기운을 빌려 마지막 목적지 충무김밥집으로 향한다. 서로 원조라 부르짖는 간판 속에서 미리 검색해 놓은 집을 찾았다. 주문을 하자마자 김밥과 석박지, 오징어무침을 내놓는다. 종일 돌아다녔으니 시장이 반찬. 빠르게 그릇을 비워간다. 그다지 특별한 맛은 아니다. 바쁜 선원과 시장사람들의 허기를 달래던 충무김밥의 유래처럼 건기 여행으로 지친 두 아가씨에게 가능한 빠르고 편안하게 기운을 북돋아 주는 음식이랄까. 우물우물 충무김밥을 먹으며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에 빙그레 웃음이 난다.

“현희야. 통영은 포항 고향동네랑 느낌이 비슷하다. 짠 내도 많이 나고.”

“그래? 난 부산에서만 살아서 모르겠다. 다 같은 바닷데 느낌이 많이 다르네.”

“그나저나 만나절은 걸었는데 살이 좀 빠졌을까?”

“글쎄. 그만큼 많이 먹었다 아이가.”[㉮]



05

04 볼거리 많은 중앙전통시장에서 놀기

05 유명한 충무김밥으로 긴 산책의 출출함을 이겨내다.



이재완 대표, 이정석 사우와 함께 Kick Off! 똥똥똥친 팀워크로 슛팅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타이어테크 사동점 이재완 대표와 안양지점(현 영업2팀) 이정석 사우는 꽤 무뚝뚝한 첫인상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훌륭한 파트너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통하는 법. 스트라이커와 골키퍼가 수비와 공격으로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루듯 그들도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고 있었다.

글 노초롱
사진 이용관



축구처럼 생동감 넘치는 두 남자

“축구선수였던 이재완 대표님이 스트라이커를 해야 딱 인데.”

고개를 갸웃거리던 이정석 사우는 공을 가진 자신과 골키퍼 장갑을 끼고 포즈를 취하는 이재완 대표의 역할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촬영하기에는 골키퍼 역할이 비교적 쉬울 것 같아 이재완 대표가 골키퍼 역할을 자처했지만 일에 관해서라면 지치는 법도 없고 추진력 강한 그가 적극이라는 것.

강할 것만 같은 두 사람이 만나 특하고 부러지지는 않을까 하던 우려와 달리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믿음으로 똥똥 똥쳐 있었다. “우와, 역시 프로는 달라요. 멋있는데요!” 연신 이재완 대표의 촬영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정석 사우. 그 응원에 힘입어 굳어있던 이재완 대표의 표정도 제법 환하게 퍼진다.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선수로 활약했던 이 대표와 취미로 축구를 즐겼다는 이정석 사우는 건장한 체격과 다부진 인상으로 강렬한 포스를 발산했다. 한때 축구에 모든 걸 걸었던 때도 있었다는 이 대표와 이정석 사우. 하지만 지금은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2007년부터 알고만 지내다가 올 3월부터 담당자가 되면서 리모델링과 오픈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대표님을 처음 뵈었을 땐, 입사 초기여서 첫인상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장난기도 가득하고 속

내가 참 따뜻한 분이예요.”

일반대리점에서 타이어테크로 변경하면서 이제 막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친분을 나누는 두 사람. 뭔가 통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물꼬가 되는 법인데 이 두 사람에게 그것은 바로 타이어와 축구인 셈이었다.

룰과 원칙을 따르는 경기처럼

마치 타이어에 군기가 바짝 들어간 것처럼 구석구석까지 정리 정돈이 잘 되어있는 타이어테크 사동점. 특별히 청소한 것인지 물으니 이정석 사우가 손사래를 친다.

“대표님이 워낙 깔끔하세요. 대리점 외관이나 내부는 말할 것도 없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분명하고 정확한 분이죠. 대리점 리모델링할 때 준비 과정부터 점포 오픈까지 함께 했는데 그때 이미 대표님의 성격을 간파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만 앞세우기보다는 정확하게 일이 진행되어 차질이 없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신뢰가 쌓이는 것 같다는 이정석 사우. 평소에도 대리점과의 관계에서 매출에 연연하기보다 먼저 얼마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신경 쓴다. 그러면 매출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정석 사우의 마음 씀씀이가 이재완 대표에게도 안보일 리 없다. 그때그때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작은 것까지 전부 기억한다고.

“일반 대리점과 타이어테크가 다르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많

았어요. 저희 말고도 담당하는 매장이 많을 텐데 전화상으로 사소하게 부탁한 것도 잊지 않고 챙겨주니 정말 고맙죠. 오히려 제가 부탁을 해놓고 까먹을 때가 많은걸요.”

듣기 좋은 칭찬이 오가는 가운데 이런 자리가 영 어색한 두 사람. 팬스레 판창을 띄우기도 하고 너스레도 떠는 모습이 소년처럼 풋풋하다. 점포 운영 외에 빅센타이어와 제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다는 이재완 대표는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제시하기도 하고 신제품 발표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의욕이 대단하다. 서로 많은 의견을 나누다 보니 이정석 사우도 자극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

분점도 내고 점포도 확장해서 앞으로 업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달리겠다는 이재완 대표. 그런 포부를 잘 아는 이정석 사우도 이미 그에 맞출 준비가 되어 있다.

“프로모션이나 현장 마케팅은 물론이고 분점에 어떤 자리가 좋을지도 같이 알아봐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뒷받침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 일이 많아요.”

이것이 팀워크가 아닐까. 서로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주고받는 호흡이 스트라이커와 골키퍼처럼 척척 잘 맞아떨어진다. 기회가 된다면 정식으로 축구를 해보고 싶다는 두 사람. 서로의 실력이 궁금하단다. 그러나 축구 실력이야 상관없지 않을까.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그들은 이미 환상적인 한 팀일 테니 말이다. Kick Off! 그들의 출전이 사뭇 기대된다. ㉞



타이어테크 사동점
이재완 대표

안양지점
이정석 사우

나의 사랑, I Love You! 나의 짝꿍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느껴지는 게 사랑이지만 달콤한 고백 없이 어찌 사랑의 완성을 말할 수 있으랴. 그간 마음 속 깊이깊이 담아두기만 했던 사내들의 뜨거운 사랑고백이 별별 콘테스트에서 활활 불타올랐다.



박한기 정련파트 직장

♥ 분홍빛 옷을 입은 당신에게 반해

당신을 만났던 내 나이 서른 즈음. 당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마냥 좋아 결혼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의 염려가 깊어지던 무렵 누님 친구분의 소개로 당신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 당신을 잘 바라보지도 않았지요. 그러다 어른들의 성화로 다시 한 번 보게 된 날,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분홍색 정장을 입은 당신만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느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당신은 5월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첫날밤 당신이 내게 준 편지를 잊지 못합니다. 현명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요. 늘 미안한 점은 넉넉한 집에 시집왔으면 하고픈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그 저 지난 18년 동안 나의 곁을 함께 해준 당신께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영원한 나의 반쪽인 진에게

나의 반쪽인 그대는 세 가지 이름이 있지. 최진, 여보, 지혜 엄마. 하지만 그대를 '최진'이라 부르는 내 마음을 아니? "여보"는 너무 흔하고, "지혜 엄마"는 우리 진이의 삶을 엄마로만 한정해버리는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난 그대를 언제까지나 "진"이라 부르고 싶다. 진아! 정말 오랜만에 당신에게 편지를 쓴다. 예전에는 낙엽 위에 사랑의 편지를 써주곤 했는데. 캠퍼스 커플이었던 우리가 부부가 된 지도 10년이 다 되어가네. 언제나 곁에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진이는 언제나 나에게 말하지. "오빠! 내가 영원히 오빠를 존경했으면 좋겠어"라고. 그런데 때때로 나는 욕심만 부리며 진이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것 같아. 이 편지를 계기로 진이에게 한 번 더 약속하고 싶다. "나 문정섭, 진이의 남편은 진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할게" 말보다 행동으로써 나의 한마디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할게. 진아! 우리 한평생 행복하게 살자. 사랑한다.

문정섭 공장혁신사무국 과장



백승 재료파트

♥ 연애 10년, 그리고 결혼

2002년 2월의 어느 날 아는 형님의 소개로 알게 된 그녀. 처음에는 막연히 호기심에 만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를 향한 확고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는 생각. 그렇게 6년이 지나고 그녀에게서 갑작스런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다시 만나기까지 1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했었죠.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녀를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던가요. 그날 이후 4년이 흐른 올해 드디어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간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눈물도 흘리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세월이 약이 되어 버팀목 같은 동반자가 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다림의 시간만큼 더 행복하게 잘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래 집사람과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다만 둘째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라 아쉽네요. 즐겁고 행복했던 사진 속 사랑스러운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오랜 시간 저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그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오랜만에 이 사진을 꺼내보면서 네 식구가 같이 찍은 사진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 일을 한다는 핑계로 가정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함께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요.

남세환 PCR파트



나상출 PCR파트 조장



♥ 여보, 다음엔 우리 둘이 찍자

2010년 가을에 고향인 합천에서 운동이나 할 겸 공원에 나섰다가 배경이 좋아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오랜만에 찍은 사진이라 내놓기가 부끄럽네요. 제 와이프와 함께 사진을 찍은 적이 별로 없더군요. 막상 자세 잡고 찍으려니 부끄럽기도 하고, 토끼 같은 아이들이 둘이나 있어 아이들 위주로 사진을 찍다보니 가족 모두가 사진을 찍는 것은 물론, 와이프와 단 둘이 찍는 경우도 드물어서 말입니다. 경상도 남자의 무뚝뚝함에도 귀한 보물을 돌씩이나 낚고 저와 가족을 사랑해준 우리 와이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충실한 가장이 되도록 노력할게. 고마워~¹⁰

나는 창녕1기다!

창녕공장 신입사원 인터뷰

멋지게 성공하자!

내년 봄은 넥센타이어에 아주 특별한 계절이 될 것이다. 손꼽아 기다리던 창녕공장에서 첫 타이어가 생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에서 두근두근 내년 봄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창녕공장에서 일과 삶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창녕1기 신입사원들이다. 공부와 실습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는 그들을 만났다.

글 허은경
인터뷰 이만성, 장호식, 조민우 사우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30여명의 창녕 기능직 신입사원들의 기념촬영이 있었다. 벌써 양산공장 이곳저곳에 자리를 잡고 맡은 책임을 다 하느라 한 자리에 모이기도 분주한 사우들. 그럼에도 내내 기분 좋은 농담과 웃음 가득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2~4개월여를 함께했으니 벌써 동기가 두터워 졌으리라. 사진을 찍은 후 다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이만성, 장호식, 조민우 사우들에게 창녕공장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그들 모두의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이만성 사우는 2개월간 정이 많이 쌓였으며 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동기들을 자주 볼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동기들이 모이면 어느새 창녕공장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분명 시행착오도 있고 순탄치 않을 테지만 서로 도와가며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자고. 우리 창녕 1기니까 멋지게 해보자고 서로를 격려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죠.”

신입사원 1차로 입사해 벌써 4개월 차인 장호식 사우도 창녕을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했다. “최첨단 자동화 공장에서 고품질 친환경 타이어를 양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뿌듯하고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입사 전에는 그냥 타이어회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최고의 타이어를 만드는 나의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드는 타이어도 최고가 될 겁니다.”

조민우 사우는 ‘빠른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었다. “저희는 지금 시작이지만 선배님들은 몇 십 년간 몸으로 쌓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따라간다는 건 말도 안 되겠지만 내년 봄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배워야지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넘어 빠른 시간에 안정화해 선배님들처럼 최고의 타이어를 생산해내고 싶습니다.”

인터뷰 내내 이들의 열정으로 분위기가 후끈후끈했다. 창녕 1기라는 책임감,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는 선배들의 든든함, 최첨단 환경에서 최고의 타이어를 만든다는 자부심,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가는 넥센인으로서의 소속감 등 어느새 신입이란 이름대신 창녕1기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듯했다. 이들이 들려준 많은 이야기를 좁은 지면에 담을 수 없음이 안타깝지만 이만성 사우가 꼭 하고 싶은 말이라며 전한 바람이 창녕1기 사우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줄 것 같다.

“교육과 실습을 하면서 선배님들이 한 번도 회사 홍보는 걸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곳에서 행복하게 가족을 꾸리고 살아갈 기반을 잡았다고,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열심히 하자고 하시죠. 회사 홍보관에 나란히 걸린 선배님들의 은퇴식 사진을 보면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멋지게 성공한 창녕공장에 꼭 제 사진을 걸겠다고요.” [㉮]



비온 후의

타이어애프트 임은점

무지개처럼

글 안성은
사진 이맹호

시커멓게 퍼붓는 비와 무지개의 주머니 받거나 함이 곧 인생이라면, 타이어애프트 임은점의 오픈 후 6개월은 검은 비구름 속이요, 지금은 비 갠 후 맑음이다. 2년 전 문을 열었을 때 고객들은 익숙지 않은 브랜드를 신뢰하지 않았고 그만큼 김재년 대표의 술이 늘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결단을 내린 김 대표는 마진을 대폭 줄여 접근성을 높이는 ‘일단 한 번 사용해보세요!’로 승부수를 던졌다. 그렇게 넥센타이어를 선택한 고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품질 타이어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호형호제하는 고객들이 그의 주변에 그득해졌다.

“지나가다 들르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를 떨지요, 그러다 나이라도 알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이 ‘형이라 캐라’ 하고 그렇게 새로운 형 동생이 생기는 거죠.” 의리와 신뢰, 더불어 사는 일에 가치를 두는 김재년 대표이기에 실적은 언제나 다음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웬걸, 사람과의 믿음을 첫 번째로 두니 매장에 사람 발길이 끊이지 않고 매상도 절로 올랐다. 지난겨울엔 강원도에서 소비자 과실로 평크가 난 고객이 근처의 타이어 매장을 알려달라며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다. 김 대표는 자신의 고객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마냥 지켜만 볼 수 없어 차에 타이어를 신고 펄펄 내리는 눈을 헤치고 강원도로 내달리기도 했다. 사업도 타이어도 전부 그에게겐 의리가 바탕이다.

매장 한쪽에 장판을 깔 휴게실은 온종일 신발 신고 일해야 하는 고객들에게 단 몇 분 만이라도 고단한 신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려 만든 공간. 운전 중 피곤하면 낮잠을 자고 가는 고객도 종종 있더니 으리으리한 응접실보다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운전자들에게 더 유익하리라. 그래도 그는 더 넓은 고객 휴게실을 만들어 동네 어르신부터 아이들이 모두 모여 놀다 가는 사랑방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다. 그의 따뜻한 소망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곱 빛깔 무지개다리를 이어주는 그의 성품이 빛난다. [㉮]



헌 사진 줄게

간편 포토샵 리터칭

새 사진 다오

글 · 사진 윤돌 여행 · 사진작가
(사진 잘 찍는 책) 저자

똑같은 카메라로 찍었는데 왜 나는 그 느낌이 안 날까? 그 비밀 중 하나는 포토샵 리터칭. 간단한 효과만으로도 사진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 빠르고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리터칭 기술을 알아보자.



수정 후

★ 빈티지 느낌의 듀오톤 사진 만들기

평범하고 평면적인 사진이 싫다면 빈티지한 느낌의 감성적인 사진을 만들어 보자.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을 소개한다.



수정 전

1. 포토샵 보정을 할 파일을 불러온 후 [Image]-[Adjustment]-[Variations] 메뉴를 실행한다. 실행하면 [Variations] 대화 창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느낌의 색상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
2. 이제는 사진을 뚜렷하게 만들어 보자. [Image] 메뉴의 [Brightness/Contrast]를 클릭한 후 대화 상자 값을 설정한다. Contrast 값은 뚜렷하게 되는 값을 말한다. 바를 이리저리 옮겨서 적당한 사진 이미지를 찾는다. 다음과 같이 빈티지한 느낌의 색상과 Contrast 값이 적용되었다. 사진의 느낌에 맞게 조금씩 달리 응용해서 활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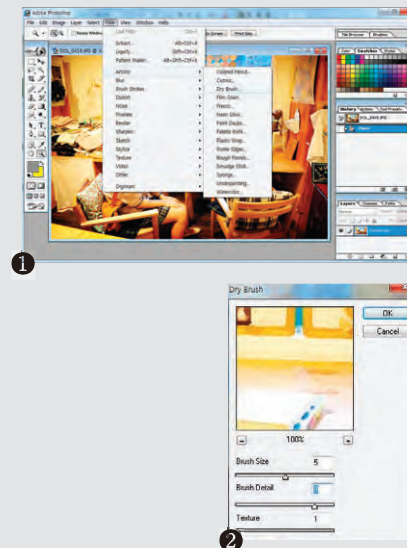
수정 후

★ 붓으로 그려낸 유화 느낌 만들기

포토샵의 필터 기능을 사용하면 사진을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바꿀 수 있다. 유화느낌의 [Dry Brush]는 동화나 만화 같은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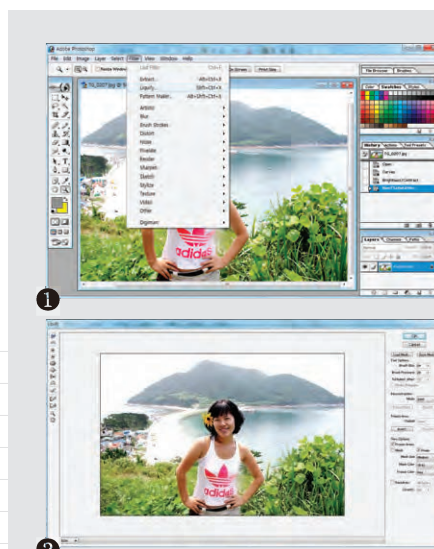
수정 전



1. 유화 느낌을 낼 사진을 포토샵으로 불러온 후 [Filter]-[Artistic]-[Dry Brush] 메뉴를 실행한다. [Dry Brush] 창이 열리면 Brush Size나 Detail 값을 수정한다.

2. 사진이 유화처럼 변진 효과가 나타난다. 변진 효과를 더 주려면 [Dry Brush] 창의 설정 값을 키우거나 필터 효과를 반복해서 적용하면 된다.

Adobe® Photoshop



수정 후



수정 전

★ 30초 만에 원하는 부분을 가늘게 만들기

사진이 다 마음에 드는데 한곳이 눈에 걸린다. 바로 절대로 빠지지 않는 팔뚝 살! 그러나 포토샵의 Liquify 툴을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턱, 볼, 팔뚝 등 원하는 부분의 부피를 줄일 수 있다.



수정 후

다리에 쥐났을 땐 야옹야옹?

자료 <박지성 신수지의 123스트레칭> 자생한방병원
권대익 지음, 전나무숲 펴냄

실생활 상황별 스트레칭

다리에 쥐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축구선수처럼 잔디에 드러누워 동료에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고양이처럼 야옹야옹 해볼까? 옆자리 동료를 재밌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요모조모 쓸모 있는 상황별 스트레칭!



Stretching 1

- 1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선 다음, 무릎이 약간 굽혀질 정도로 높은 곳에 쥐가 자주 나는 쪽 다리의 발을 올려놓는다. 몸의 무게중심은 바닥에 닿은 발에 둔다.
- 2 올려놓은 발의 발가락이 모서리에 닿도록 발을 내린다. 올려놓은 다리의 무릎을 펴고 서서히 힘을 주면서 발등을 누른다. 이 동작을 좌우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켜 피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쥐가 난다는 표현은 근육이 갑자기 수축돼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근육이 피로한 상태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아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한다. 특히 오래 앉아 있어 종아리와 발목이 자주 붓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에는 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몸 쪽으로 힘껏 당겨준다. 다른 부위라면 경련이 일어난 부분의 반대 방향으로 서서히 관절을 굽히면 된다. 근육 경련을 예방하려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다리가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들 때 수시로 스트레칭을 한다. 잠을 자다가 자주 쥐가 난다면 잠들기 직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소화가 잘 안 될 때

식사만 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며 소화제를 찾는 사람이 있다. 활동량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위 무력증 때문이다. 이때 소화제를 먹으면 위장을 더욱 게으르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우리가 숨 쉬고 소화시켜 에너지를 얻는 장기는 갈비뼈와 척추,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근육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몸을 적당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무력해지고 등이 앞으로 굽고 웅크리는 자세를 자주 취하게 된다. 이런 자세는 장기 활동에 지장을 주어 소화를 방해하고 피로감을 더할 수 있다. 만성 피로와 소화 장애에는 적당한 운동이 가장 좋은 약이다. 그중에서도 가슴과 배를 쪽 펴주는 운동은 척추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피로감을 덜고 내부 장기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Stretching 2

- 1 벽 옆에서 허리를 세우고 바로 선 다음, 한쪽 팔을 어깨 높이로 올려 손바닥으로 벽을 짚는다. 이때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일자로 바르게 펴는 것이 효과적이다.
- 2 벽을 짚은 팔 쪽의 다리를 큰 보폭만큼 앞으로 내딛는다. 앞으로 내딛은 다리 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고, 뒤쪽 다리의 발꿈치를 떼면서 몸의 중심을 앞쪽 다리로 옮긴다. 이 동작을 좌우 모두 반복한다. 가슴과 배, 그리고 엉덩이 아래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Stretching 3

- 1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양어깨를 귀 가까이로 올린 채 3초 정도 유지한다.
- 2 숨을 내쉬면서 툭 하고 아래로 떨어뜨린다. 이 동작을 3회 이상 반복하면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을 풀고 잠을 쫓는 효과가 있다.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질 때

전날 수면이 충분해도 웬지 한낮이면 나른하고 쉽게 지치는 경우가 있다. 이리저리 뛰어도 보고 커피로 잠을 쫓아도 보지만 그때뿐이다. 봄에는 춘곤증 핑계라도 달 수 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졸다 보면 주위 사람 보기가 민망해진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척추 배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등이 굽고 목이 일자로 서게 되면 머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쉽게 피로해진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시로 등과 목 근육을 풀어주어야 잠을 쫓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척추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Stretching 4

- 1 양손을 엇갈려 깎지를 낀다.
- 2 천장으로 올려 팔과 척추 전체를 쭉 늘린 상태에서 15초간 멈춘다. 이 동작을 5~7회 반복하면 척추 주변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자존심만 있나요, 자존감도 있나요?

글 장근영 심리학자

〈나와 싸우지 않고 행복해지는 법〉저자

사진 이명호, 〈체포왕〉스틸컷



영화 〈체포왕〉은 실적주의에 빠진 우리나라 경찰의 모습을 소재로 쉽게 웃을 수만은 없는 코미디를 전개한다. 실적주의 평가제도의 도입과 함께 경찰들은 무조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건에만 올인하고 시간 많이 걸리는 강력범죄는 외면하는데 그 와중에 두 경찰서 마포서와 서대문서는 실적을 둘러싼 경쟁에 돌입한다. 마포서의 황재성(박중훈)과 서대문서의 정의찬(이선균). 정의찬은 예비 아빠로서 전세집을 마련하기 위해 현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하지만 황재성의 이유는 좀 다르다. 그는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는 콤플렉스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속승진을 목표로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황재성을 움직이는 것은 자존심이다. 내가 못난이가 아니라는 걸 남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지점도 여기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피 튀기는 경쟁에 뛰어든 그의 심정에 이 나라의 직장인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한다. 자기 자신이 보는 '주관적 자아'와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 자아'. 자기 스스로의 평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존감과 남들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자존심. 비슷한 것 같지만 결코 다른 두 가지 자아에 대해 알아보자.

자존심과 자존감 어떻게 다른가

Self esteem,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말로 번역된다. 그런데 같은 의미를 담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어에 담긴 뉘앙스는 상당히 다르다. 자존심은 보통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한다. 즉 남들 앞에서 자신의 우월한 면을 내세울 때 우리는 '자존심을 세운다'라고 말한다. 반면에 자존감은 즉 남들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쪽에 가깝다. 간단히 말해서 자존심은 남에게 내세우는 포장이고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인 것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존심과 자존감의 균형이 필요하다.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에 더 많이 기댄다는 점이다.

자존심은 대개 비교 평가인데, 이런 평가에는 우열이 존재한다. 즉, 우월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열등한 자가 있는 법. 이 게임에서 궁극의 승자는 가장 위에 서 있는 한 명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잠재적인 패자들이다. 마포 경찰서의 황재성도 승자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패자로 밀려나고 만다.

여기에서 객관적 평가는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가치들을 무시한다.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력과는 상관없이 차별을 받고, 민생에 훨씬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성범죄와 사소한 경범죄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경찰의 본분을 잊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스펙(Spec)은 바로 이런 고유성을 잃어버린 세태를 반영하는 단어다. 비교평가의 총합인 스펙을 최상급으로 갖춘 이를 요즘은 '엄친아'라고 부른다. 보통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다른 집의 (객관적으로 더 바람직한) 자녀와 비교하려들면서 생긴 말로 '엄마 친구 아들 아무개는 이렇게 뛰어난데 너는 뭐니?'라는 식의 객관적 비교에 질려버린 세대가 만들어낸 말이 엄친아이고 그 세대가 빠져버린 함정이 바로 스펙인 것이다.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

나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하지만 여기에만 얽매어 스스로 보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잃어버린다면, 그 내면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그 공허한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허우대와 위선과 내세우는 자존심에 집착한다. 외국의 기준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은 이미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끝없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이유도, 그 결과 신경증이 만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달리는 이유도 그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자존감을 찾는다는 것은 남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가치,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만의 삶의 중심을 만든다는 의미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C.Rogers)는 현대인의 정신건강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자존감의 결여에 있다고 봤다.



우리는 각자가 우주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다.

스펙이나 실적으로 비교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

자기 일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같은 시선으로 다른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일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마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이는 무한경쟁에 시달리는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특히나 적절한 진단이다.

낮은 자존감 털어내자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영화 〈체포왕〉에서 답을 찾아보자. 결국 황재성은 실적경쟁에서 밀려나 동네 파출소장으로 부임한다. 그는 여기서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경찰 본연의 존재 의미를 깨닫는다. 경찰업무가 경쟁이기 이전에 대민봉사라는 사실에 눈뜨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봉사에는 자존심이 필요하지 않았다. 파출소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당사자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고 실적을 쌓거나 승진하지 않더라도 자신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다.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칼 로저스는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라고 말한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의 인식이다. 실제로 우리는 각자가 우주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다. 스펙이나 실적으로 비교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 자기 일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같은 시선으로 다른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일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마 그 시작이 될 것이다. ㉞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을 위협하는 전자파

전자파에 포위됐다!

글 안성은
사진 이명호

참고도서 <전자파가 내 몸을 망친다> 랜덤하우스 펴냄

컴퓨터, 휴대전화, 복사기, 형광등, 각종 콘센트와 케이블까지 우리의 삶은 전자파에 포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소 스트레스 탓으로 떠넘기는 피로, 두통, 기타 통증들이 사실은 우리를 에워싼 전자기기의 전자파에서 비롯된 일인지도 모른다.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각종 기기들과 현명하게 동거하는 법은 없을까.

휴대전화를 품에서 내려놓지 않는 그대, 당장 이별하라

스마트폰의 편리성은 전자파와의 더 깊은 동거를 부추겼다. 무선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사무실과 집, 지하철 등 어디에서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한 와이파이 수신이 가능하게 됐고, 결국 사용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루 24시간 무선파에 노출된 셈이다. 이웃집의 무선 인터넷망만으로도 우리집까지 무선파에 노출될 수 있다하니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전자파 노출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어린이와 태아는 성인보다 전자파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잦은 사용은 피해야 한다. 실제로 2008년 미국에서 1만 3,0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엄마가 임신 중에 하루 두세 번 이상 휴대전화를 쓴 아이들에게서 행동항진증, 감정 조절의 어려움, 타인과 원만한 관계 유지의 어려움 등의 경향을 발견했다.

휴대전화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어떤 전자기기보다 사용 빈도가 높다. 따라서 더욱



전자파 노출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통화 대신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거나 핸드프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휴대전화가 우리 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뇌와 다른 장기에 도달하는 무선 신호도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휴대전화의 극초단파 방사선은 성인 남자의 두뇌 속으로 3cm까지 파고들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거나 노트북을 무릎에 두고 사용하는 행위는 남성들의 정자 수를 줄이거나 운동성을 손상시키는 등 생식기 건강을 위협한다. 가방 등 몸에서 최대한 먼 곳에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무선인터넷을 꺼놓도록 한다.

TIP 전자파 줄이는 휴대전화 이용법

1 통화보다는 문자를 이용하라 2 통화할 때는 스피커폰 기능을 켜라 3 수시로 비행기 모드로 바꿔라 4 양손으로 번갈아 들어라 5 비좁은 공간을 피하라 6 감도 표시에 신경써라 7 짧게 통화하라 8 번호를 누르고 바로 팔을 뻗어라 9 호주머니에 넣지 마라 10 잘 때 머리맡에 놓지 마라

TIP 전자파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건강 보조식품

칼슘(Ca) 칼슘은 세포와 세포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만약 전자파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거나 칼슘이 유출된다면 크고 작은 증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칼슘을 섭취할 때는 무기질인 마그네슘과 함께 1대 1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800~1,000밀리그램이다. 유제품과 진한 색깔의 채소, 아몬드, 우엉 등에 많다.

마그네슘(Mg) 칼슘의 흡수와 유지에 관여하는 무기질로 신경세포 내의 칼슘 양을 상시 점검해 이로 인한 과잉자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준다. 또한 필수 항스트레스성 무기질로 혈관, 신경, 근육, 뼈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성인의 경우 400~800밀리그램, 어린이나 청소년은 50~400밀리그램이 권장섭취량이다. 브로콜리, 견과류, 호박씨, 콩 등에 많다.

인(P) 생명과 직결되는 물질로, 대부분 음식물에 함유되어 있다. 인은 세포의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고 소통시키는 역할을 해, 이 무기질이 없으면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불가능해진다. 19세 이상은 700밀리그램, 임신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700~1,250밀리그램, 어린이는 1,250밀리그램이 적당하며 청어, 참깨, 간, 달걀노른자에 함유되어 있다.

벽을 뚫는 가전의 자기장, 옮길 수 없으면 피하라

아무리 뜨거운 토스트나 진한 커피를 만든다고 해서 이들 기구로 피해를 당할 만큼 오래 켜는 사람은 없으므로 자기장 방출에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전기식 오븐이나 냉장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등 번압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냉장고 내부에는 음식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형 에어컨 시스템과 이것을 가동하는 거대한 모터가 들어 있다. 또 냉장고 내부에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팬이 있어 주변에 수 밀리가우스의 자기장을 형성한다. 제품에 따라서는 응결을 막기 위해 문에 전기히터를 댔던 것도 있다. 그야말로 전자파를 전방위로 내뿜는 가전제품이다. 하지만 평소 오랜 시간 주방에 있지 않기에 냉장고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주방의 냉장고와 벽 하나를 두고 소파나 침실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벽은 중요한 전기 배선들이 지나가는 곳인데다 전자기기의 자기장은 벽과 바닥쯤이야 손쉽게 뚫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장의 세례를 퍼붓는다. 만약 집의 구조상 냉장고를 옮길 여유가 안 된다면 소파나 침대의 위치라도 옮기는 것이 좋으며, 냉장고는 식사하는 곳으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한다. 요리할 때는 전자제품과 팔 길이 정도 만큼 떨어져 작업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침대 근처에 컴퓨터나 스탠드, 콘센트 등 전자파를 방출할 수 있는 것들을 머리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배치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다. 전자기기의 전기를 껐어도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교류 자기장은 계속 방출된다. 예를 들어 액정화면이 있는 전자제품은 전원을 껐다 해도 완전히 끈 게 아니고 다음에 켜질 때까지 대기하는 것일 뿐이다. 이럴 때 온-오프 단추가 달린 콘센트를 이용해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전원을 꺼두는 것도 대처 방법이다. ㉞



강병중 회장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상’ 수상

강병중 회장이 ‘2011년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상’을 수상했다.

이 시상식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인과 기업을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에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을 비롯한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신영주 한라공조 회장이 선정되었다.

강병중 회장은 넥센타이어를 지난 10여년간 세계 타이어업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1994년부터 9년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는 등 평생을 기업인으로 경영 일선에 몸담아 왔다.

이외에도 넥센 월석 문화재단과 KNN 문화재단, 월석선도 장학재단을 설립해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에도 모범적인 기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1 한국재무혁신기업 대상’ 및 ‘한국CFO 대상’ 수상

넥센타이어의 투명경영과 신뢰경영이 인정받고 있다. 지난 9월 16일 한국CFO협회(회장 김상훈)가 주최하는 ‘2011년 한국재무혁신기업 대상’에서 넥센타이어는 수상 기업으로 선정된 것 외에도, 경영관리담당 이현종 상무가 ‘2011년 한국CFO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겹경사를 맞았다. 한국CFO협회는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02년 이후 매년 재무경영혁신을 통해 기업가치를 창조해 낸 최우수 혁신 기업과 해당기업의 CFO를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다. 올해는 넥센타이어를 비롯해 (주)LG생활건강과 호남석유화학 등 3개사가 최종 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 ‘직업건강 활동 부문’ 우수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4회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행사”에서 안전



보건우수사례 발표대회 “직업건강 활동 부문”에서 우수상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넥센타이어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직업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산업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음 등에 대한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키자니아 고객 대상 20% 할인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넥센타이어가 지난 9월 5일부터 30일까지 키자니아의 운전면허 시험장을 체험한 가족을 대상으로 20%의 제품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보증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키자니아 4인 가족 입장권을 증정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지난 8월 출시한 친환경 경 타이어 N' blue ECO 구매 고객에게 예코백 증정과 함께 10월말까지 두 달간 매일매일 자전거 한대씩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2011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 4라운드, F1경주장서 개최

‘2011 넥센타이어 RV챔피언십’ 4라운드가 지난 9월 18일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최됐다.

이번 4라운드에서는 그간 RV, SUV 4개 부문과 디젤 승용 2개 부문으로만 운영된 대회에 기술린 승용부문을 신설해 RV, SUV차량 간의 대결뿐만 아니라 특유의 사운드와 스피드를 가진 승용간의 대결을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었다. 총 8개 부문의 레이스로 그 규모 역시 확대돼 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유방암 예방에 앞장서다 ‘핑크리본 캠페인’ 후원

넥센타이어가 유방암 예방 캠페인인 ‘2011 핑크리본 캠페인’에 적극 나섰다. 이 캠페인은 유방암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10월 전 세계에서 열리는 글로벌 공익캠페인이다. 넥센타이어는 10월 5일을 ‘넥센히어로즈 핑크데이’로 정해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는 넥센히어로즈와 두산의 경기에서 선착순 무료티켓 증정 이벤트, 핑크리본 배지와 막대풍선 제공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로 경기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였다.

넥센타이어 전문 판매점인 타이아테크에서는 10월 한 달간 방문 여성 고객에게는 할인과 무료 타이어 점검 및 홈페이지 통한 화장품 이벤트 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조합 조삼규 수석부위원장 산업평화상 수상

경상남도가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수여하는 ‘제20회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에서 넥센타이어 조삼규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은상을 수상했다. 조삼규 부위원장은 1996년부터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노사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고, 반대은행 감동주기 1인1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해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부분 등을 인정받았다. 또 부모 이미지 탈피를 위해 회사명을 넥센타이어로 변경하도록 제안하고,



현장안정을 통한 매출·이익·생산성 향상 및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신노사 문화 우수기업에 연속적으로 선정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한 점도 선정 기준이 되었다.

넥센타이어 로디안 족구클럽 올해 역시 전국대회 휩쓸어

넥센타이어 로디안 족구클럽이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펼쳐진 제4회 국민생활체육 김제시장기 전국초청족구대회에서 최강부 3위,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다. 그 밖에도 9월에는 함양군수배 초청 족구대회 준우승과 양산시 족구연합회장배 족구대회에서 준우승을, 7월에는 양산시 족구연합회장배 족구대회와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일반부에서 준우승, 울산백암온천 전국초청족구대회에서 최강부 준우승을, 영월동강배 전국족구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며 최강 실력을 과시했다.

독자 후기

「자전거, 이동수단에서 다시 여가수단으로」라는 기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자전거 가격을 보면 재질이나 용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크게는 자동차의 가격과 비슷한 자전거도 많더군요. 하지만 이동과 여가 모두를 충족하며 건강까지 챙겨주는 보약인 자전거이기에 쉽사리 손에서 놓을 수가 없네요.

● 유한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평소에 사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사진의 기술」 기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카메라의 기본 기능만 이용해도 훨씬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기본 기능조차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저 역시 그랬고요. 카메라의 기술을 배우려고만 했지 기본 기능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못했네요. 이번 기사를 통해 좋은 카메라를 사기보다는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의 기본 기능을 잘 인지하고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석상훈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타이어교환을 하기 위해 들렀던 대리점에서 <헬로우 넥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여러 이야기들이 잘 배분되어 있어 유익했습니다. 특히 「자연에서 배우다」코너가 재미있었습니다. 우두벌의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거머리나 구더기 치료 등의 이야기들은 생소했기에 몹시 흥미로웠습니다.

● 최창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은 독자여러분과 함께하는 넥센타이어의 사보입니다. <헬로우 넥센>에 궁금하셨던 점이나, 바라는 점 등을 연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헬로우 넥센> 구독신청은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인사팀 박수현 055.370.5283 soo0526@nexentire.co.kr

지난호 정답

세로

1 상고대 3 무재해 5 터키 6 해병대

가로

1 상해모터쇼 2 대나무 4 해운대

퀴즈 당첨자

- 이은혜 경북 경주시 북부동
- 장명화 경남 양산시 소주동
- 예미진 경남 양산시 동면
- 이규호 경기 용인시 수지구
- 유정 경남 안양시 물금읍

- 홍수진 경남 양산시 물금읍
- 유심덕 경기 성남시 분당구
- 이지훈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 김미라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 오기순 서울시 중구 신당동

복습 퀴즈

1		5		
2				
			6	7
3	4			

세로

1 멕시코에서 처음 개장된 어린이 직업 체험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세계 5개국에 개장했으며 우리나라에도 2010년에 문을 열었다.

4 OO투지, 불교 신자가 삼보(三寶)에 올리는 큰절로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다섯 부분이 땅에 닿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었다.

5 일본의 화폐단위로 ¥ 또는 Y로 표시한다.

7 강원도 강릉시와 평창군의 경계에 있는 고개로 고령지 채소 및 씨감자의 주산지이며 목축업이 발달해 있다.

힌트 의아지 바람마음이 있는 곳.

가로

2 창녕공장은 최첨단 000 설비로 이루어졌으며 친환경 고성능 타이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힌트 내지 66P 17번째 줄 참조.

3 골든데리셔스에 홍옥을 교배하여 만든 사과 품종. 8월 하순~9월 상순 경에 수확하며 쓰가루라고도 불린다.

5 넥센타이어가 새롭게 개발한 친환경 타이어 000 예코.

6 가면극이나 인형극 같은 연극이나 줄타기, 판소리 등을 하던 직업적 예능인. 민속연예를 전달하던 최하층의 천인들로서 궁중·관가·양반의 사랑을 비롯하여 도회·농어촌·시장 등을 돌며 재주를 보였다.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주느라 고생이 많네

페타이어로 굵을 만들어 넣은 이 구두는
때로는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느라 힘을 써버렸고
어스름한 새벽녘 출근길에는 누구보다 먼저 걸음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어느 때보다 부지런했고
시간에 쫓겨 계단을 두세 개씩 성큼성큼 뛰어오를 때는
구두의 굽도 한 움큼씩 닳아갔지요.

내 몸의 가장 바닥에 있는 탓에 늘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오늘은 내 삶의 인생을 다 짊어진
구두의 낡은 굽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